



2026년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 전망

AN ERA OF HYPER-POLARIZATION

코람코자산운용 리서치전략실

2025. 12.

Disclaimer

본 자료는 당사의 상품에 투자 하였거나 투자 참여를 고려하는 투자자를 위해 작성되었으며, 코람코자산운용 펀드의 취득 또는 청약의 권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 또는 그 내용에 따라 투자하거나 이를 근거로 투자하여서는 안됩니다.

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독립된 검증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당사는 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와 관련한 어떠한 보증이나 보장도 제공하지 아니하며 모든 의사결정은 의사결정자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자료가 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공개 또는 배부될 경우에는 당사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에 반하여 본 자료가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보고서 이용자나 제3자에 의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Executive Summary

AN ERA OF HYPER-POLARIZATION

'26년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대형 프라임 자산 중심의 超양극화 시대로 진입할 전망입니다. ① 우수한 입지에 대형 면적을 보유한 프라임 오피스 및 물류센터에 대한 임차 수요는 더욱 견고해지며, ② 향후 저성장 국면에서 프라임 자산에 대한 투자자 선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피스: 대형 거래 주도의 시장 재편

'25년 상업용 부동산 투자 시장은 오피스 중심으로 재편되었습니다. 연말까지 전체 거래규모는 약 30조 원 이상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오피스 비중은 7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는 역대 최대 거래규모를 기록했던 '21년(32조 원)의 오피스 거래 비중인 48%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팬데믹 이후 견고한 임차 수요 속에서 사옥 확보를 위한 SI의 시장 참여가 크게 증가했으며, 3분기 기준 전체 거래의 80%가 대형 자산에 집중되면서 자산 양극화가 뚜렷해졌습니다. 이러한 대형 자산 선호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물류: 디스트레스드 중심에서 정상 거래로 체질 개선

'25년 상반기 물류 시장은 외국계 투자자 주도로 디스트레스드 자산 거래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며 '20년 이후 최저 거래규모를 기록하는 등 부진했습니다. 그러나 시장 환경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높은 공사비, 경기도 내 물류창고 건설 조례 제정 등으로 향후 신규 공급은 더욱 감소할 전망입니다. 화주들의 자동화 니즈 증가로 대형 물류센터에 대한 임차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초대형 센터 중심으로 공실률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기존 디스트레스드 자산 중심의 거래에서 정상적인 거래로의 체질 개선이 진행됨에 따라 '26년 물류 시장은 저점을 지나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데이터센터 및 주거: 투자의 포트폴리오 다각화

데이터센터는 생성형 AI 발전과 산업 수요 증가, 전력 확보 부지 희소성으로 주요 권역 내 기존 시설 및 수전 확보된 데이터센터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전력확보가 용이한 옛지 데이터센터 시장 또한 동반 성장할 전망입니다. 주거(코리빙)시장에서는 안정적인 자산의 매각(Exit) 사례가 확인되었으나, 정책 불확실성이 여전히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트폴리오 다각화 차원에서 기관 및 해외 투자의 관심은 '26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피스
대형 거래비중 증가

물류
NPL성 거래비중 감소

데이터센터
변동성 적은 안정적 섹터

2026년 섹터별 투자시장 Cycle

열람을 원하시면
코람코자산신탁 또는 코람코자산운용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ontents

01	Global Macro	5
	거시경제	
02	CRE Market & Trends	14
	오피스/물류센터/호텔/리테일	
03	New Economy	32
	데이터센터/임대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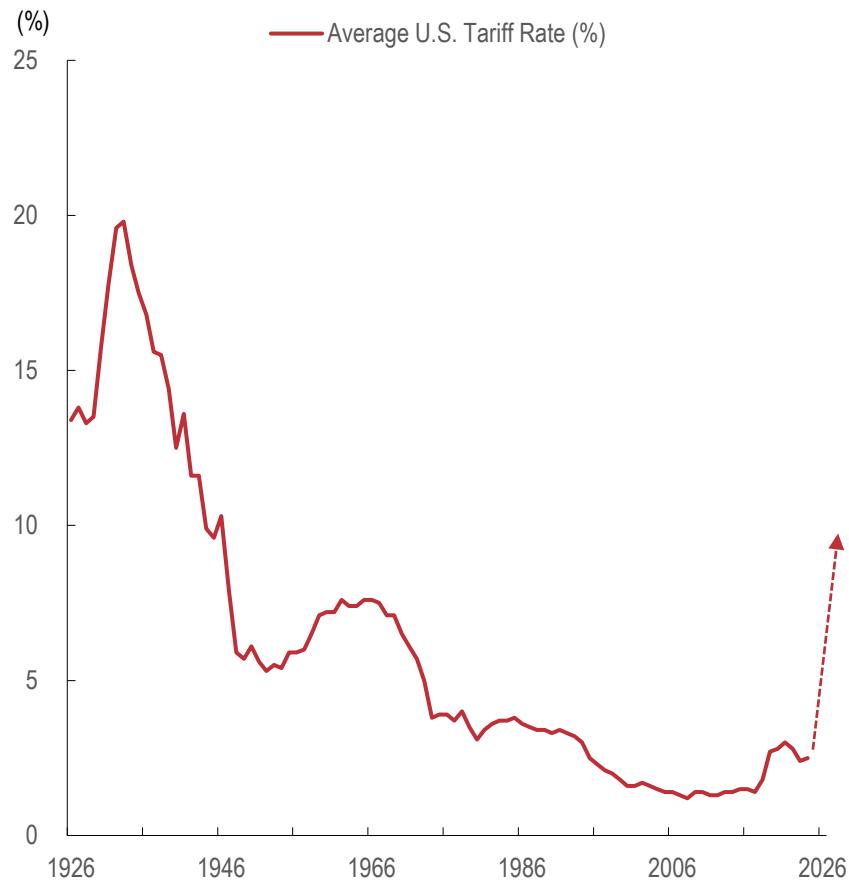
01. Global Macro

2026 CRE Market Outl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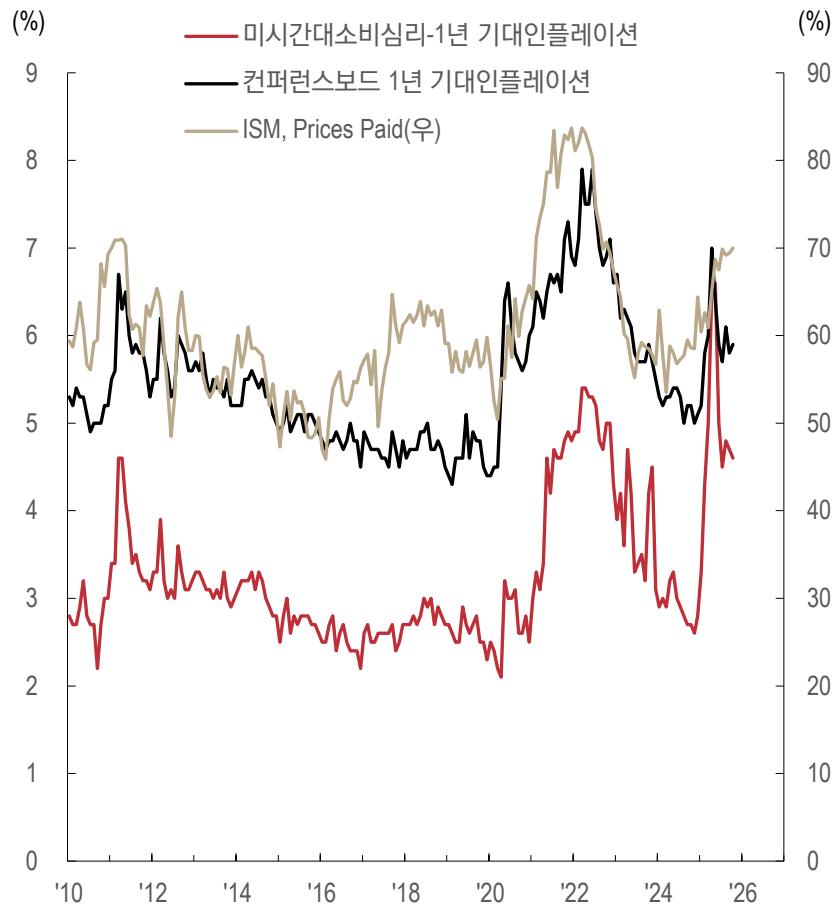
트럼프 관세 부과 후 미국의 물가 재상승 우려와 경기침체 우려가 혼재된 인플레이션 심리지표

- 트럼프는 4월 2일, 모든 수입품에 보편 관세 10%와 대미 무역 흑자국에 추가 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함
- 관세 정책은 시차를 두고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재차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와 경기침체 우려가 혼재된 상황

미국 관세



혼재된 인플레이션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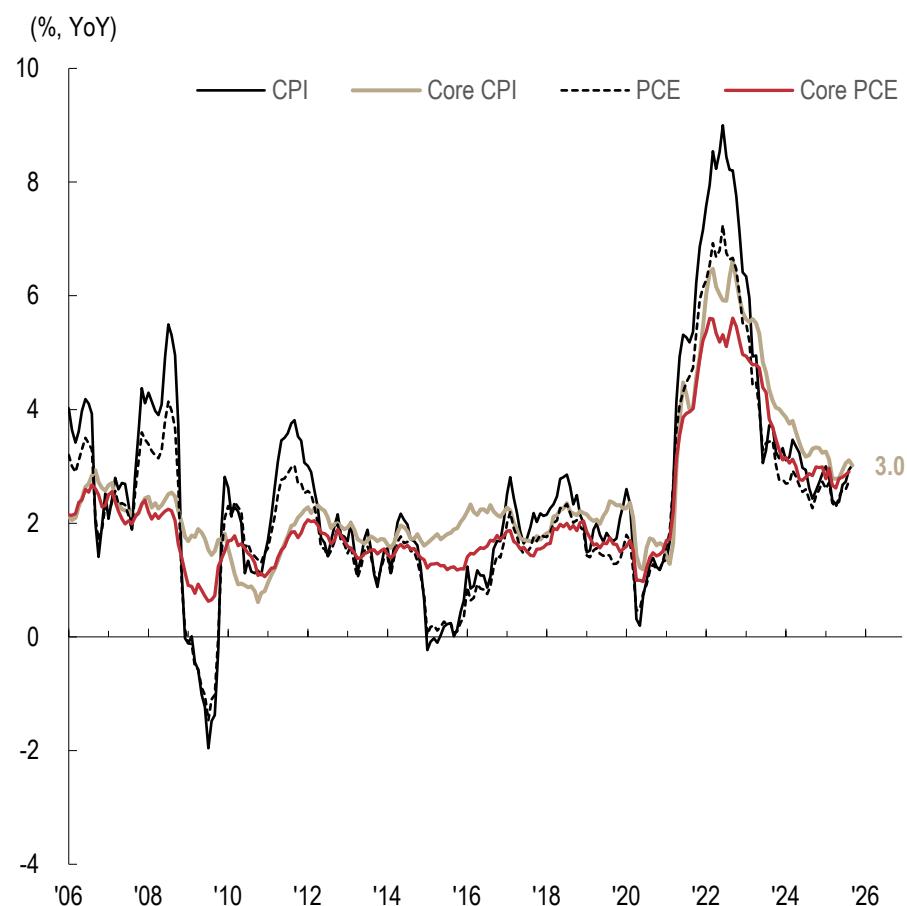


Source: Yale University, University of Michigan, ISM, LSEG, Koramco 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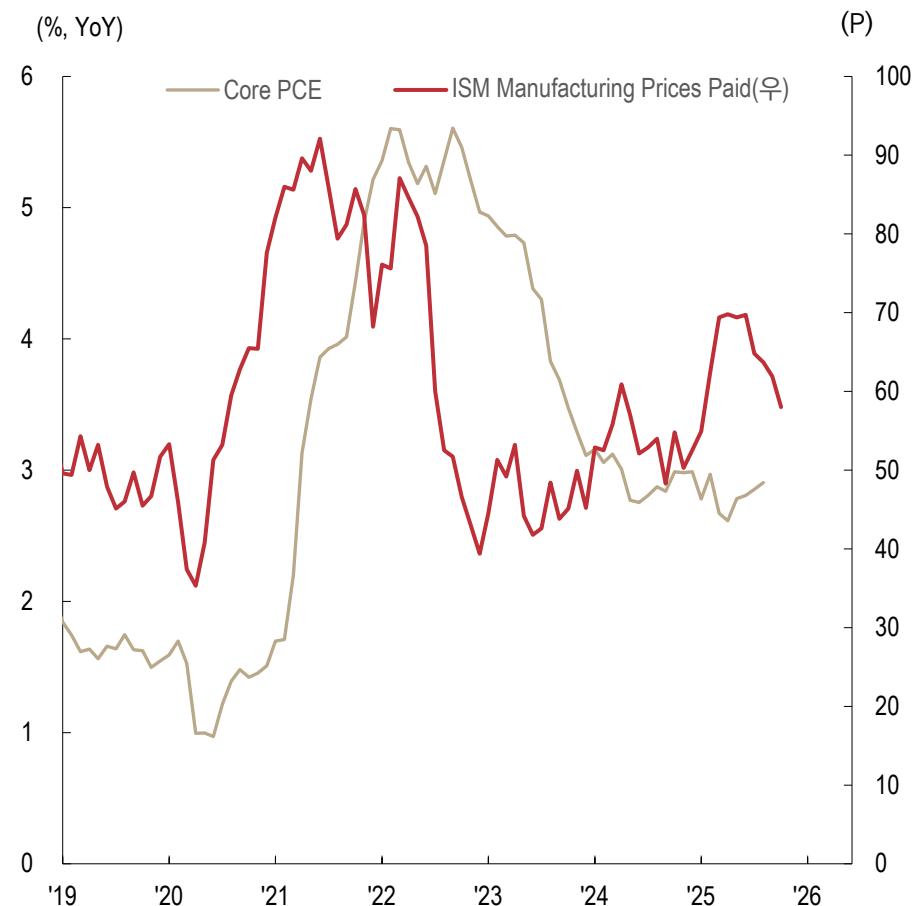
미국 물가 지표는 3% 수준에서 정체 중이나 '26년 재상승 우려

- 미국 Core CPI와 PCE는 전년동기비 3%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음
- 주거비 상승률은 둔화됐으나, 일부 품목들은 이미 소비자가격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음

미국 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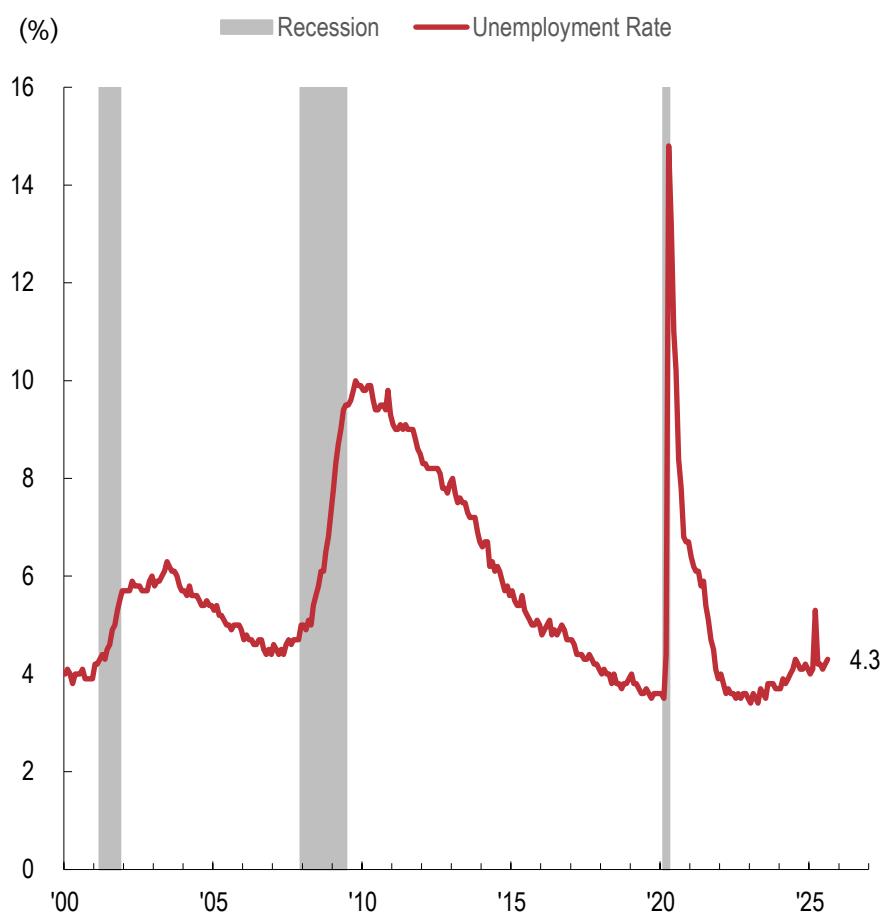
ISM 제조업 지수와 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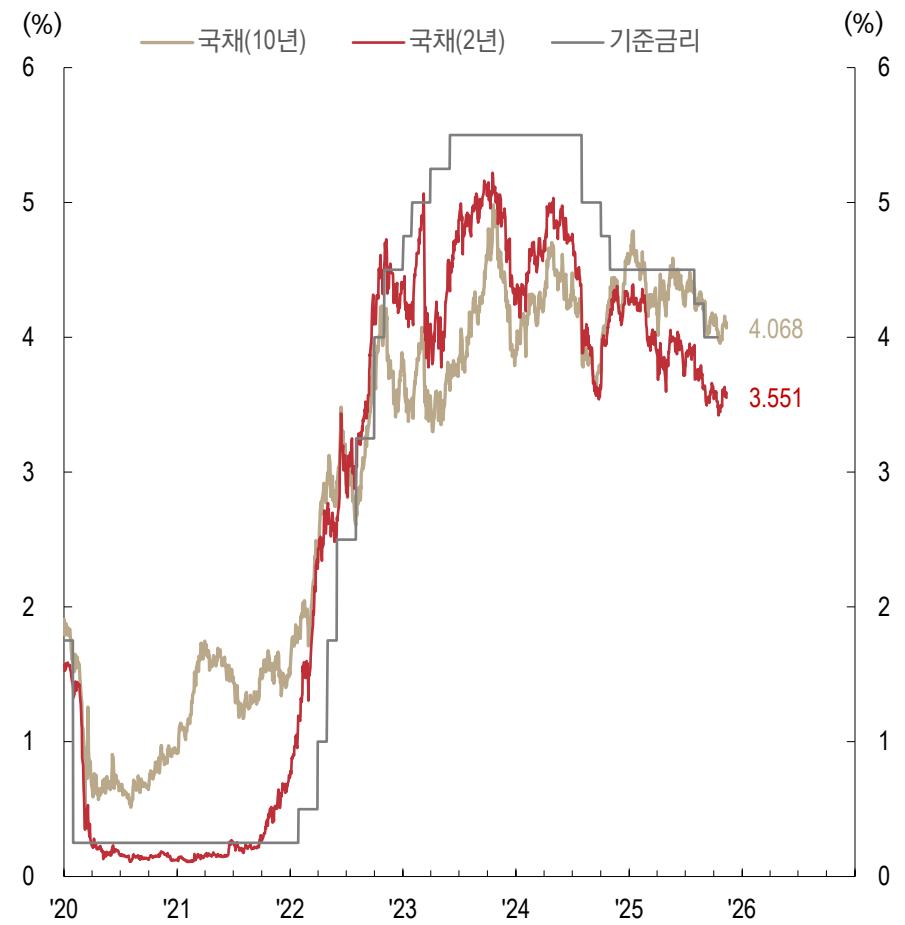
미국의 실업률은 서서히 상승하고 있으며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미국 정부 Shut down 이후 공공 부문 채용 감소, 민간의 대졸 이상 신규 채용 공고 감소로 실업률 악화 전망
- 12월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 높은 가운데 '26년에도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이어질 전망

미국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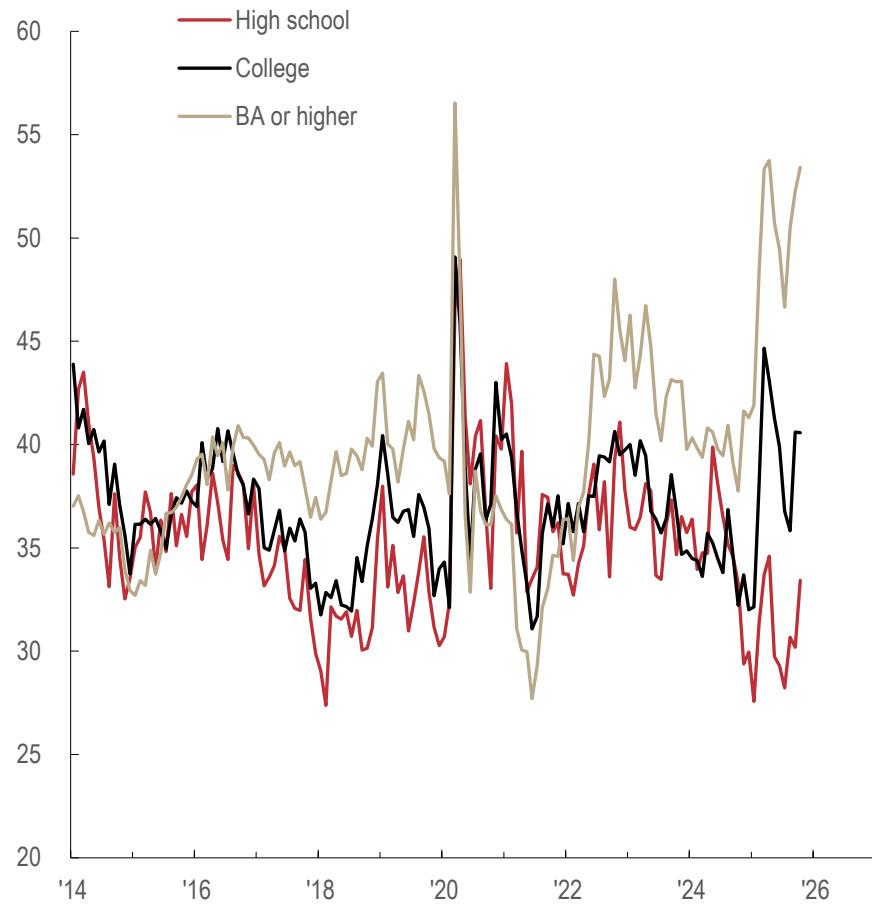
미국 국채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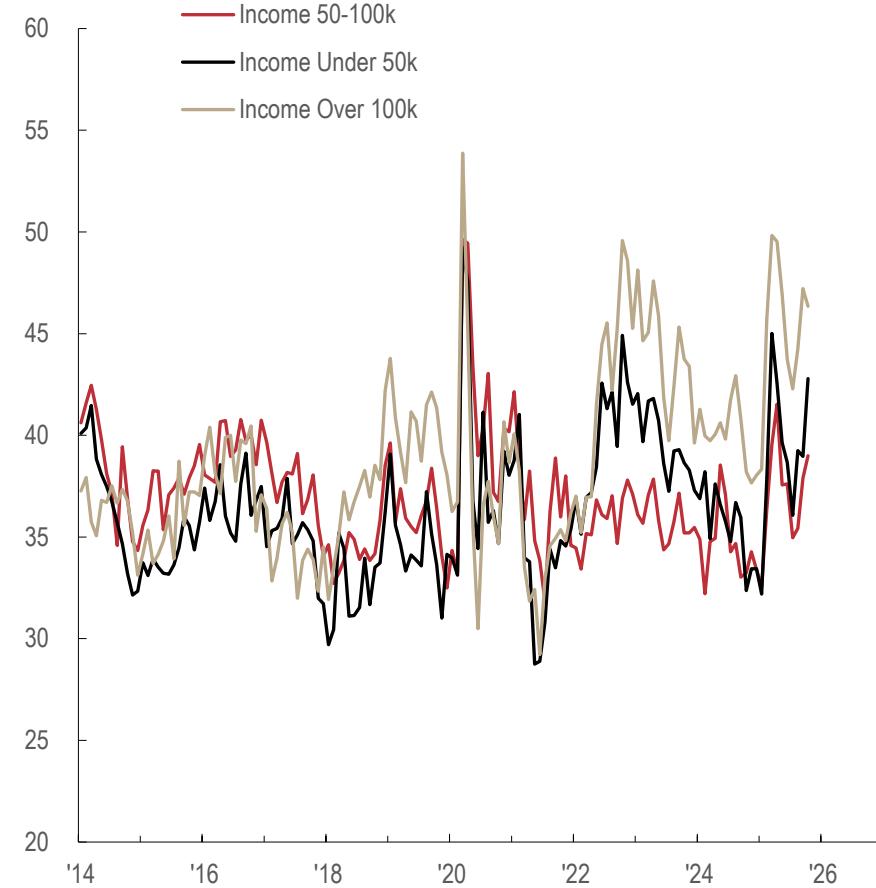
미국의 1년 후 고용 전망에 대한 심리는 이미 상당히 악화되었음

- 뉴욕 연준의 소비자 심리 조사에 따르면, 고학력자(BA 이상)의 고용 불안 심리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음
- 소득별로도 고소득자(연 소득 100k 이상 가구)와 중산층(50~100k)의 고용 불안 우려 확산 중

Expected Unemployed by Demographics(학력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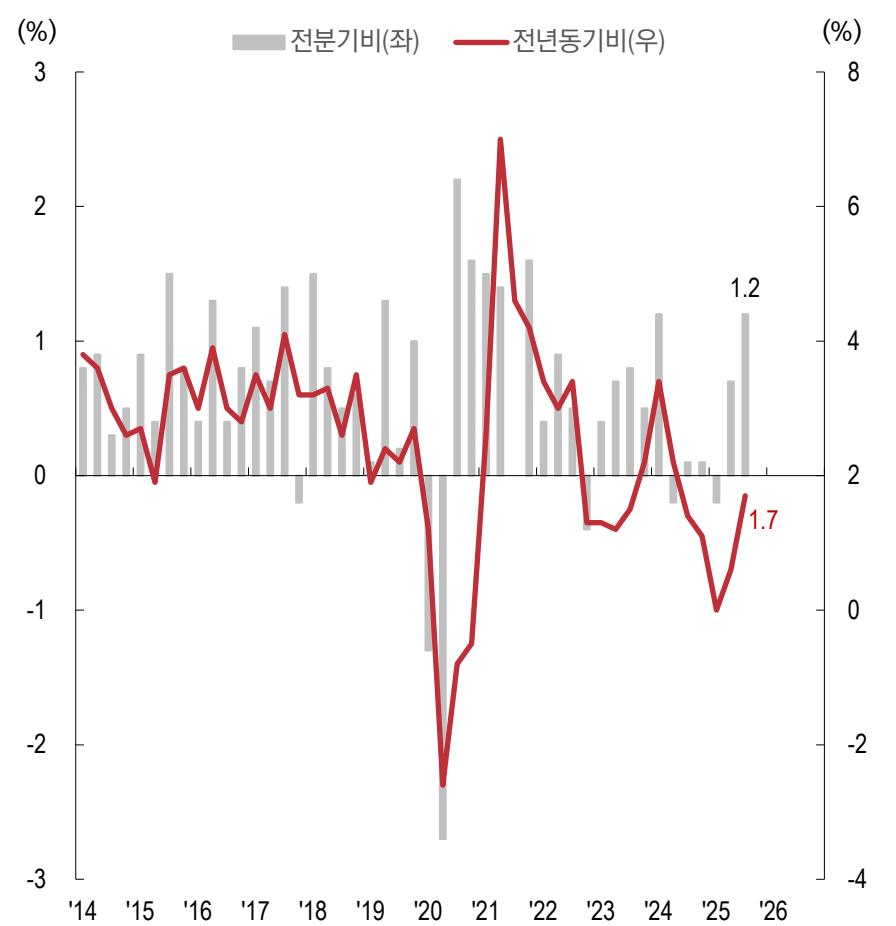
Expected Unemployed by Demographics(소득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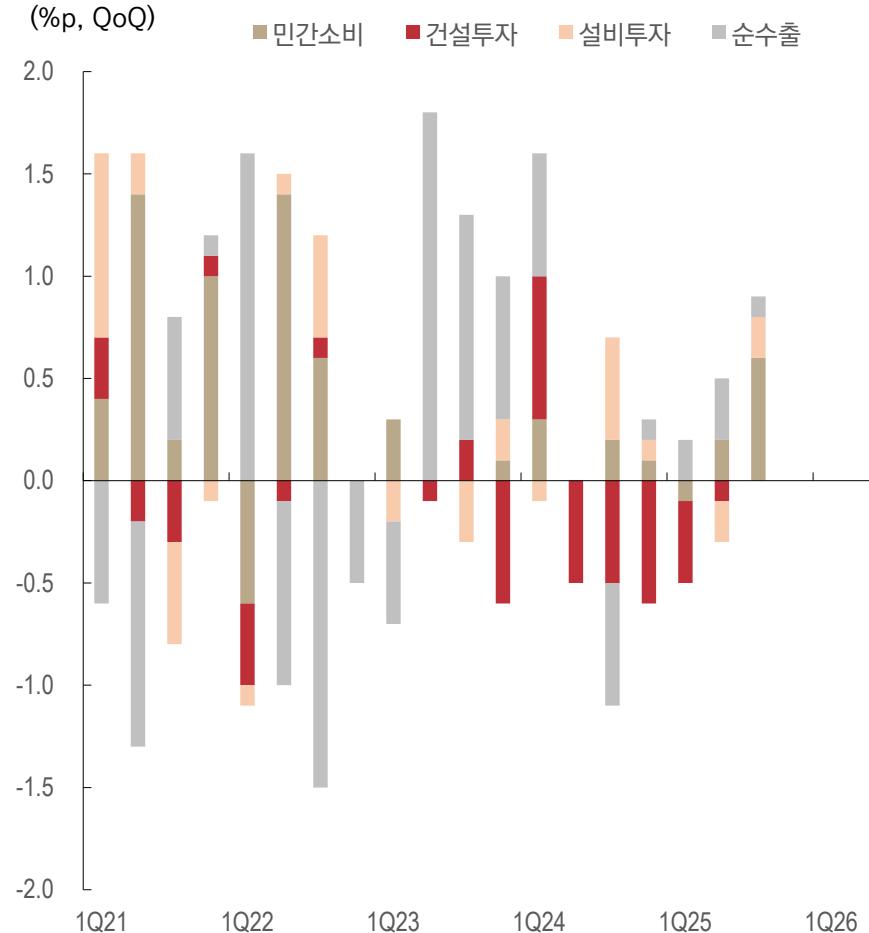
3분기 민간 소비 회복, 설비투자와 순 수출 증가에 힘입어 회복 중인 한국 경제

- 정부 내수 부양에 힘입어 민간 소비 회복, 순 수출도 증가하며 3분기 한국 GDP 성장을 전 분기 대비 +1.2% 성장
- 5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해 온 건설투자의 저점 통과

한국 GDP 성장률



한국 GDP 성장률 지출 항목별 기여도



Source: 한국은행, LSEG, Koramco R&S

한국의 물가는 안정적인 편이나, 고환율 부담

- 한국 소비자 물가는 2%대로 안정적인 수준이나, 달러 지수 대비 원화 약세 지속되며 고환율 부담

한국 인플레이션



WTI 선물과 원/달러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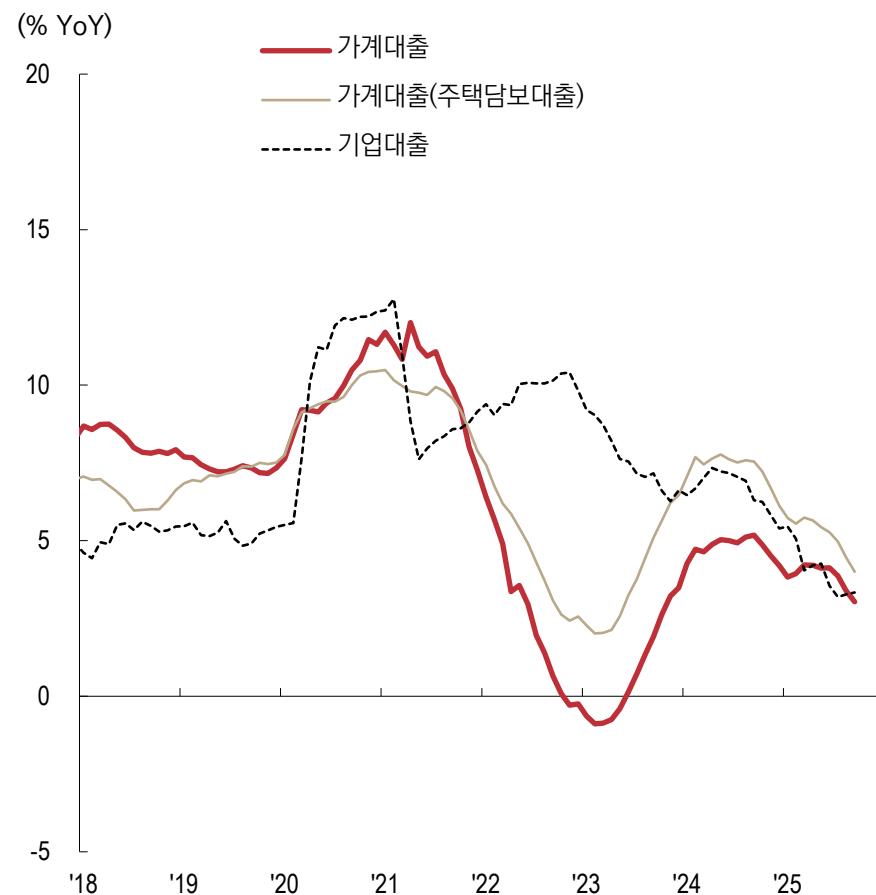


Source: 한국은행, LSEG, Koramco 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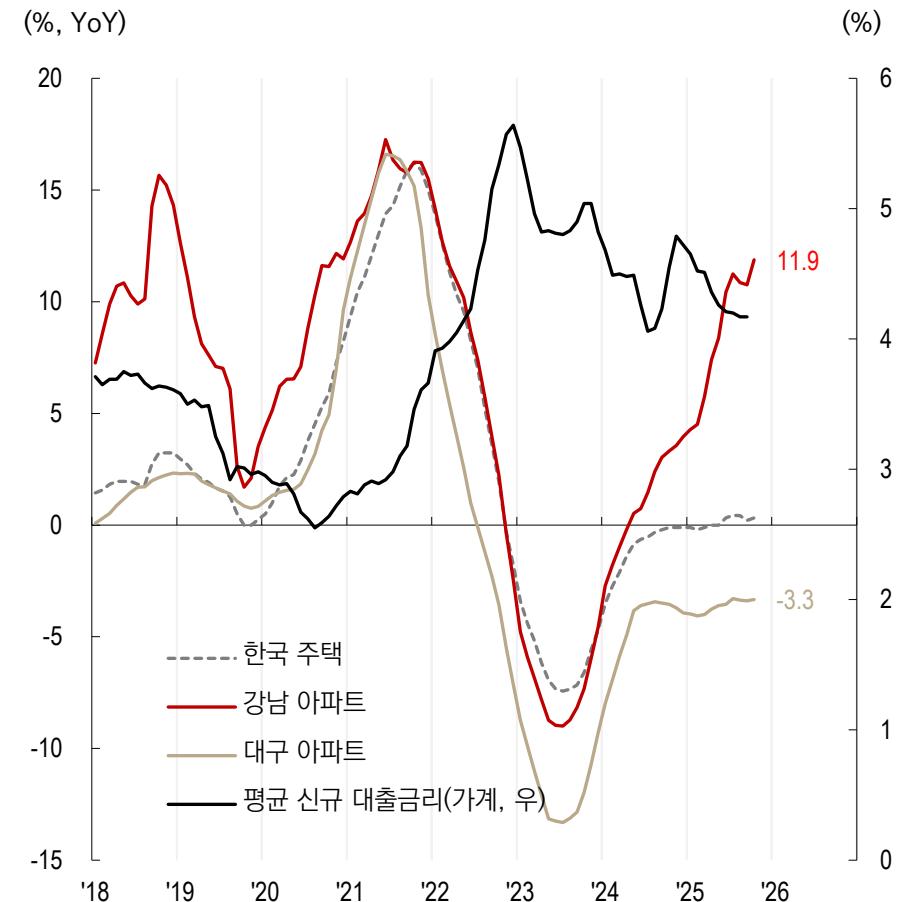
규제 강화로 대출 증가율 둔화되었으나, 주택 가격 양극화 심화

- 금융기관 건전성 강화, 가계 대출 규제 강화로 대출 증가율 둔화
- 전국 주택 가격 보합세인 가운데 강남 아파트 가격 신고가 → 지역 간 양극화 심화

가계와 기업의 대출 증가율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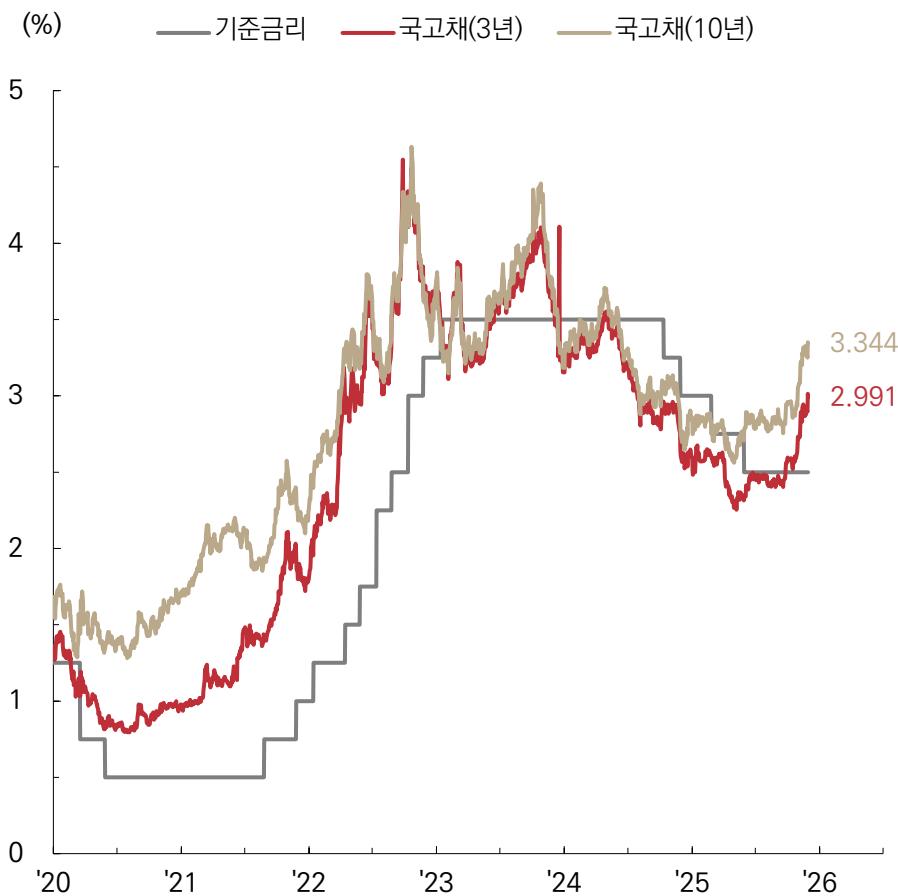
대출 금리와 주택가격 변동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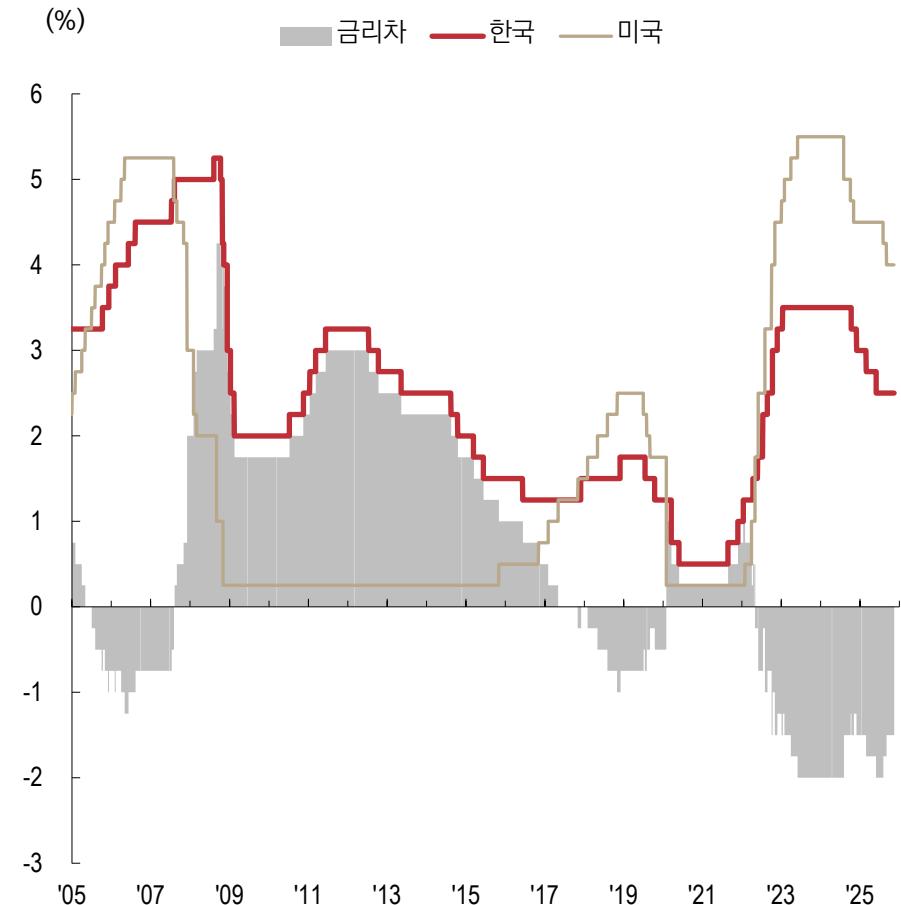
한미 기준 금리차와 주택 가격 상승 부담으로 금리 인하 어려워진 한국

- 기준금리 인하 지연되며 국채금리 다시 상승
- 한미 기준금리 차 감안, 환율과 주택 가격 모니터링하며 금리인하 속도 조절 중

한국 국채 금리



한미 기준 금리 차이



Source: 한국은행, LSEG, Koramco 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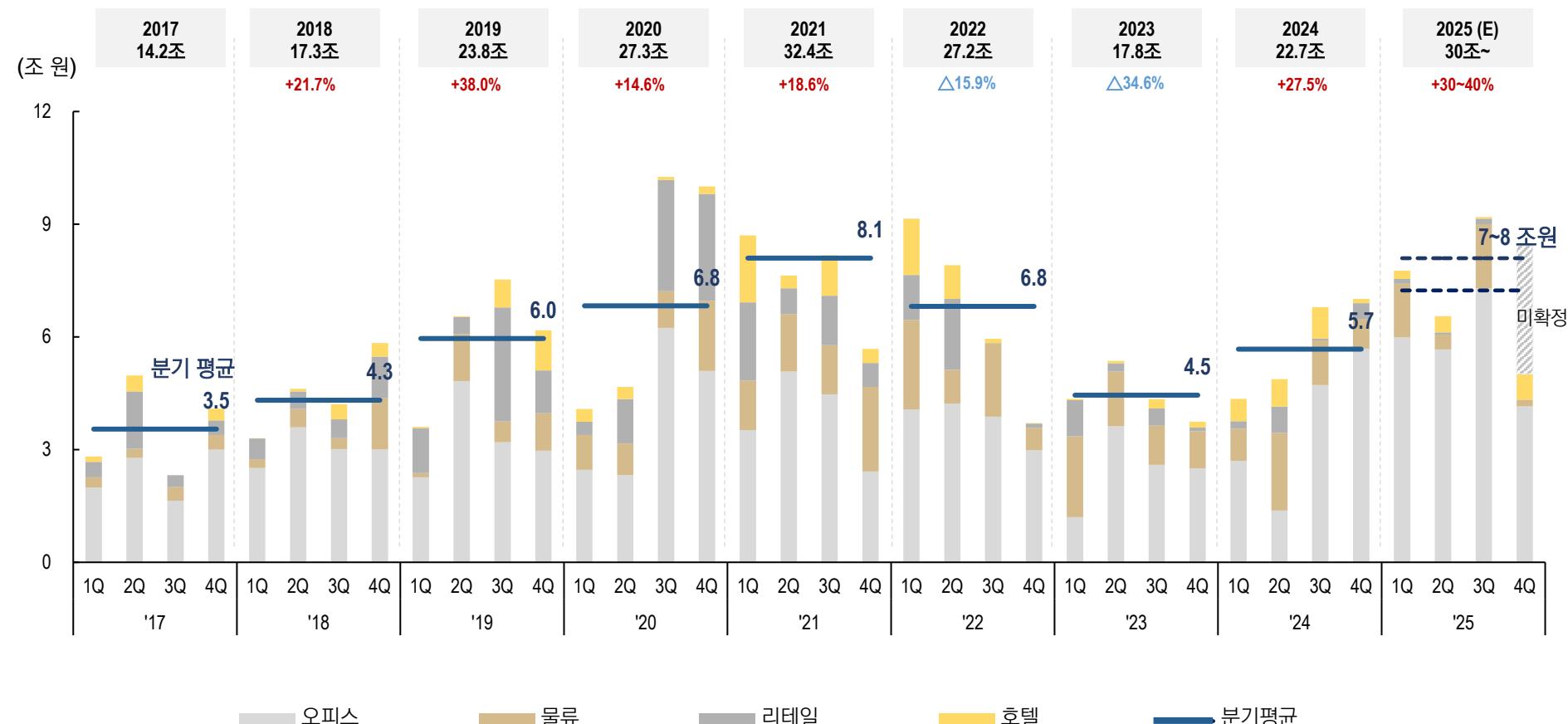
02. CRE Market & Trends

2026 CRE Market Outlook

국내 상업용 부동산 거래 규모 3분기 누적 24조 원, 연내 30조 원 이상 전망

- 4분기 예상 실적 반영 시 분기당 7~8조 원, 연 30조 원 이상 추정되며 직전 고점('21년) 수준 근접
- 리테일·호텔·물류센터 거래 부진 속 오피스 거래 비중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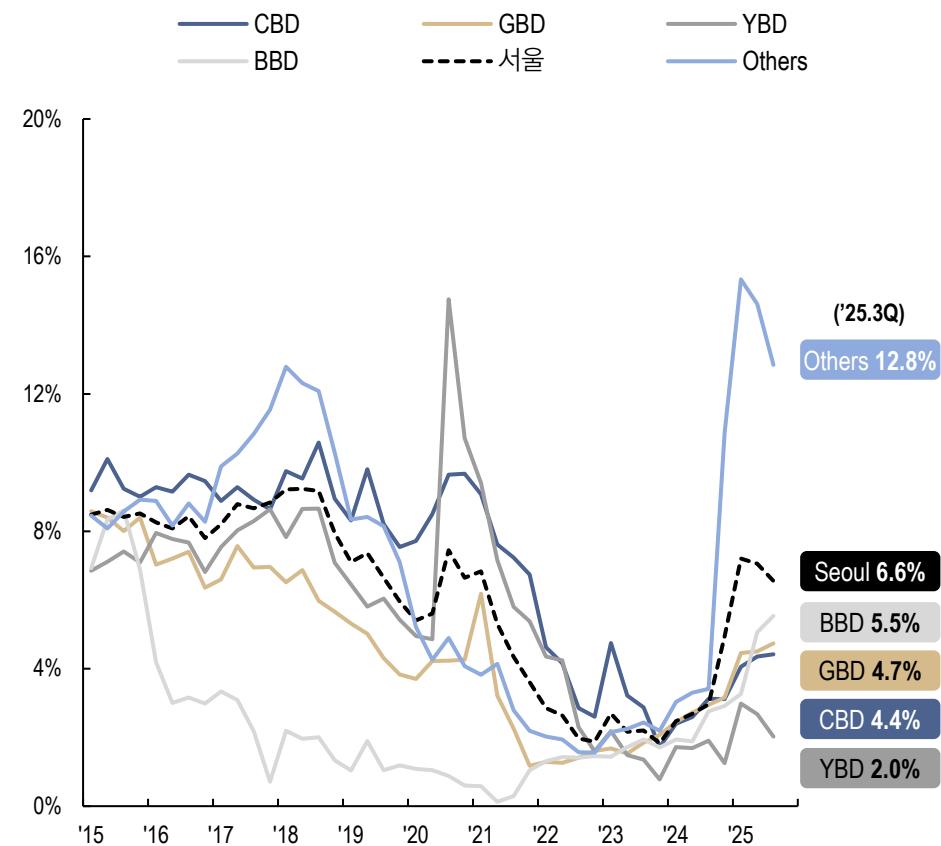
상업용 부동산 거래 규모 추이 (분기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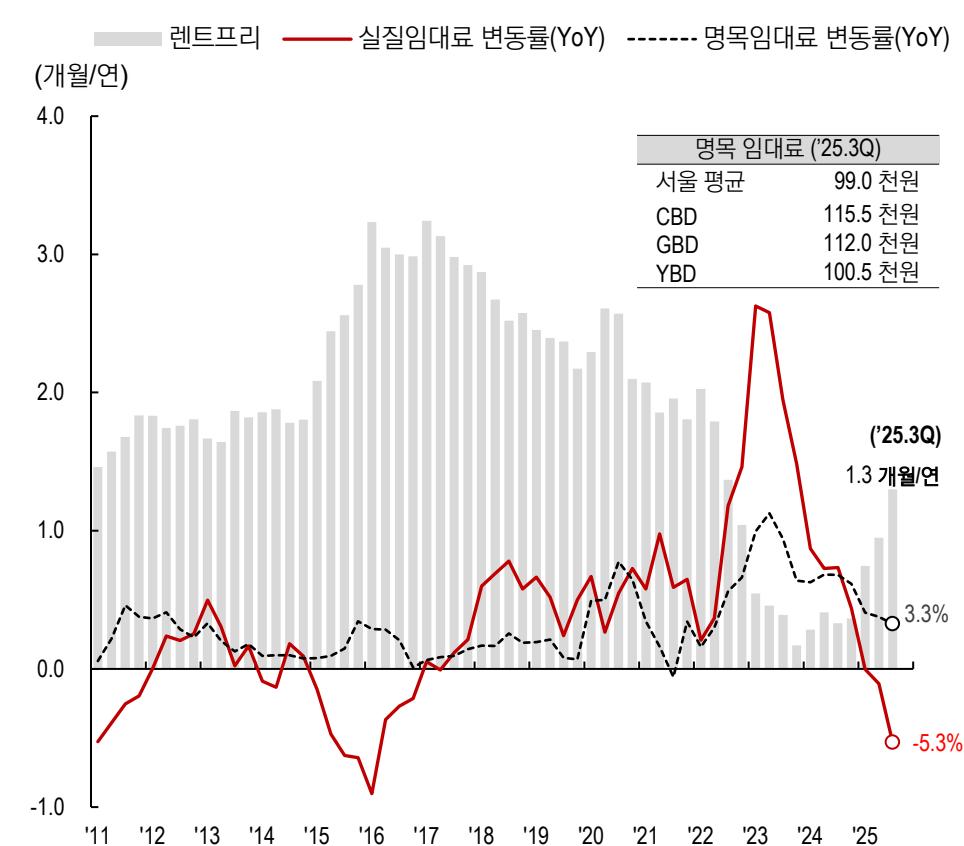
서울 오피스 공실률 소폭 감소, 실질 임대료 전년 동기 대비 하락

- 기타 권역과 YBD 오피스 공실 일부 해소되며 3분기 공실률 전 분기 대비 하락한 6.6% 기록 (-0.5%p QoQ)
- 명목 임대료 상승폭 둔화, 렌트프리 확대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실질임대료 변동률 2분기 연속マイ너스 기록

오피스 공실률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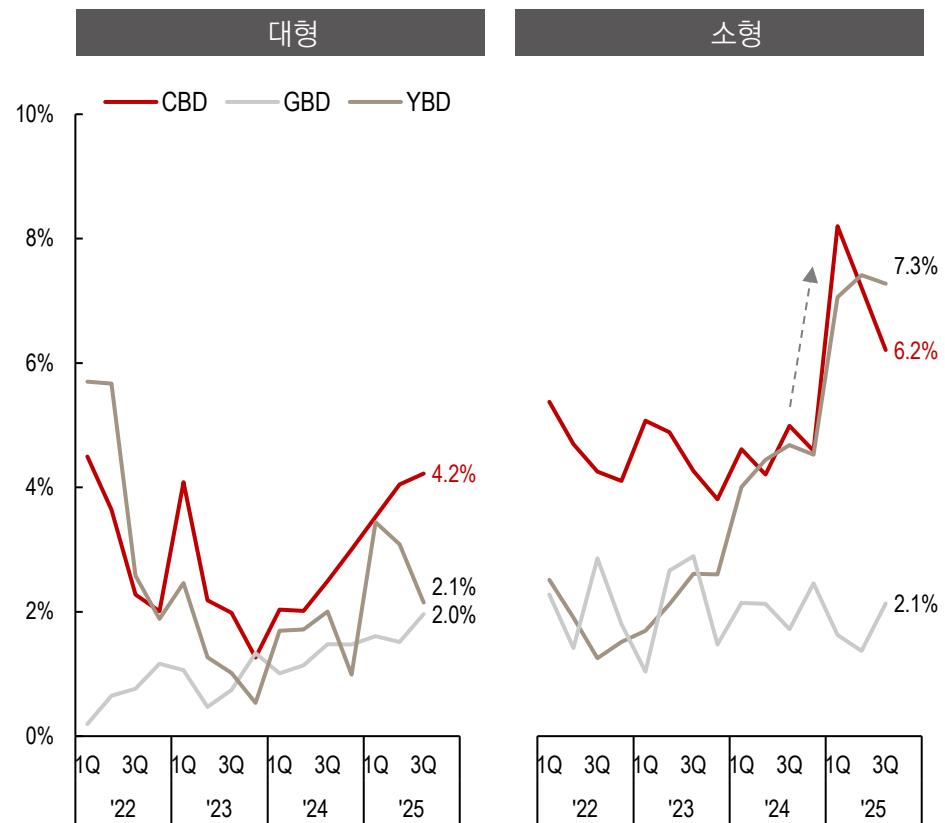
임대료 변동률 및 렌트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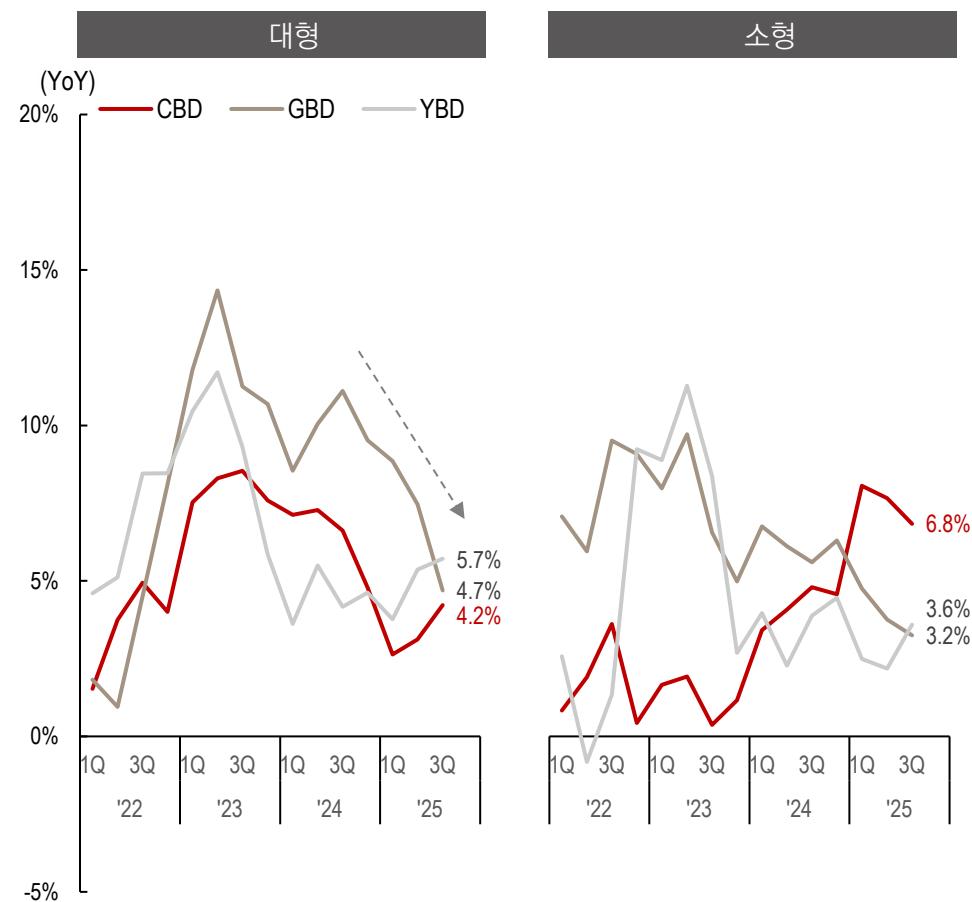
권역별·등급별 오피스 임대시장 다른 움직임 관찰

- 대형 오피스 공실률 2%대로 낮은 가운데 CBD 공실률 상승세. 소형은 YBD 제외 시 여전히 높은 편
- 대부분의 권역 및 등급에서 명목임대료 상승폭 3~4%대로 둔화. GBD 임대료 상승폭 감소세 관찰

오피스 공실률



오피스 명목 임대료 변동률



Note: 소형: 5천평 미만, 중형: 5천평 이상~1만평 미만, 대형: 1만평 이상

Source: 알스퀘어, Koramco R&S

신축 대형 오피스 임차수요에 힘입어 2분기 연속 플러스 순흡수면적 기록

- 올해 YBD 및 기타 권역만 양의 순흡수면적 기록. 서울 3대 핵심 권역은 '24년 이후 마이너스
- 전체 임차 수요는 신축 대형 오피스에 집중 현상 확인

권역별 오피스 순흡수면적

등급별 오피스 순흡수면적

열람을 원하시면
코람코자산신탁 또는 코람코자산운용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자 수 증가율 둔화 등 오피스 임대시장 수요 기반 약화 우려

- 서울 오피스 사용 직업군의 취업자 수 2025년부터 마이너스 기록 (1~10월 평균 -1.4% YoY)
- 최근 몇 년간 주요 오피스 임차수요 주도했던 IT 관련 산업의 취업자 수 최근 급감

직업별 취업자수 증감율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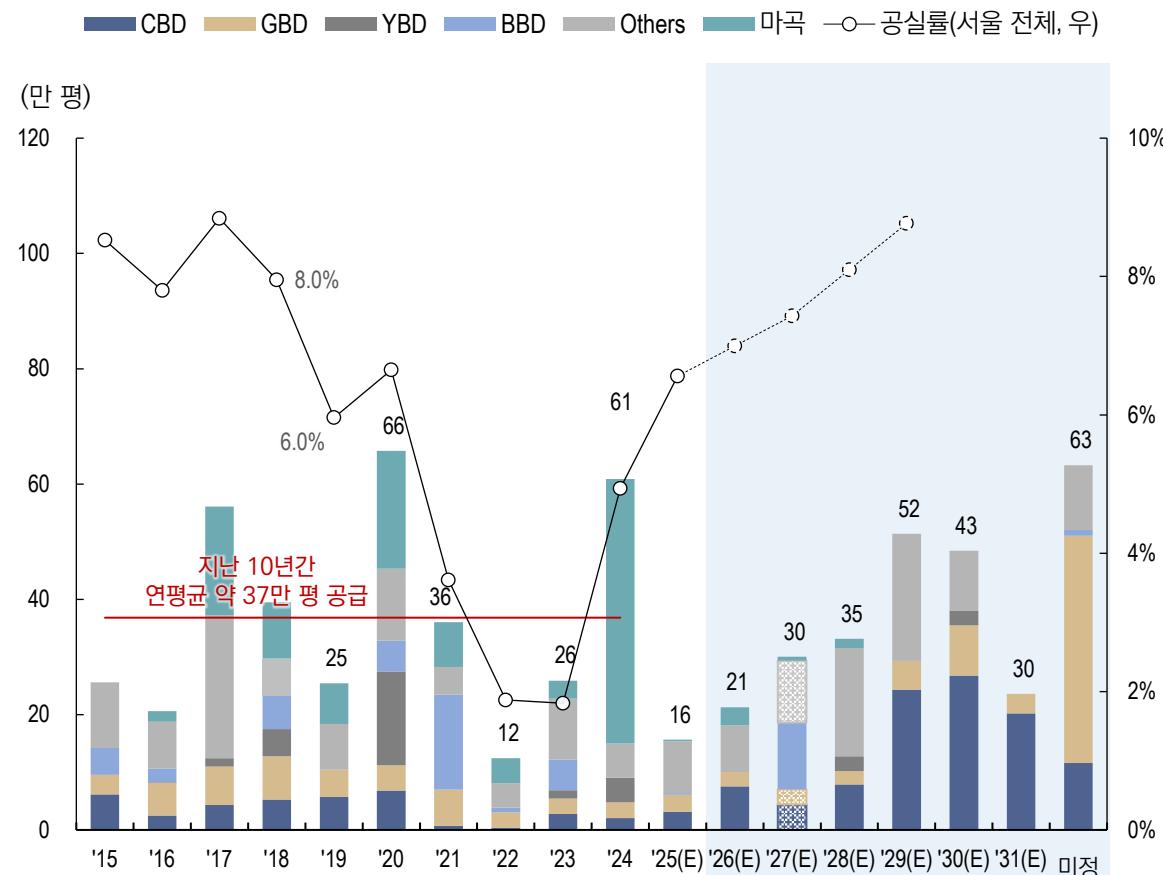
산업별 취업자수 증감 (전국)

열람을 원하시면
코람코자산신탁 또는 코람코자산운용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권역 신규 공급 지연, 2028년까지는 과거 10년 평균 수준 유지 전망

- 지난 10년간 서울 오피스 연평균 37만 평 공급, '28년까지 제한적 공급 지속 예상
- 향후 5년간 공급 예정 물량의 35%가 CBD에 집중. 주요 예정 사업 공급 예정 시기 지연에 따른 조정 예상

권역별 오피스 신규 공급(예정) 물량¹⁾ (2025.3Q 기준, 연면적 1천평 이상, 사옥 포함)



주요 CBD 오피스 공급예정시기 변경 사례

구역명	연면적 (평)	공급예정시기 변경 (과거1년)
을지파이낸스센터 (을지로3가구역 제1,2지구)	20,416	'27→'29
ONE X (수표구역, 컴투스 신사옥)	52,061	'26→'28→'29
DDIVC 서울역 오피스 개발사업 (봉래구역 제3지구)	22,926	'27→'30
삼성생명 서소문빌딩 (서울역-서대문1,2구역 제1지구)	75,377	'28→'30
더스페이스양동 (양동 제11,12지구)	15,631	'29→'31
이오타서울 PJT 힐튼호텔 재개발 (양동구역 제4-2,7지구)	102,542	'29→'31
세운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94,405	'27→'28→'30

Note: 1)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공급 시기 변동 가능, 업무시설 면적 파악이 불가능한 일부 복합개발 사례의 경우 단지 전체 면적 대비 업무시설 면적 60%로 가정

2) 서울 전체 공실률의 경우 각 연도의 4분기 기준

Source: 알스퀘어, Koramco R&S

재개발 중심 신규 공급 예정, CBD는 권역 확장 중

- 개발 지연으로 인한 준공 일정 유동적(대부분 초기 또는 준비 단계), 실제 공급 시기는 예정보다 지연될 것으로 예상
- 서소문·서울역·을지로·세운지구 내 대규모 임대 목적 오피스 신축 예정으로, 기존 광화문 중심에서 외곽으로 권역 확장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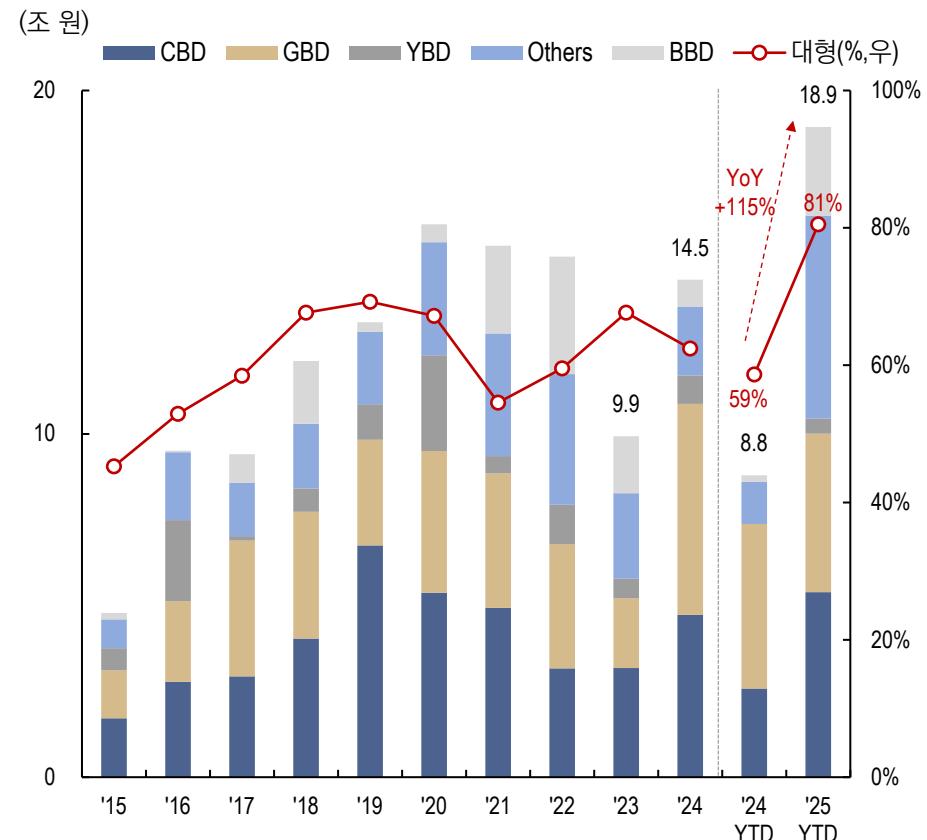
CBD 내 세부 권역별 주요 공급예정 물량 (연면적 5천평 이상)

열람을 원하시면
코람코자산신탁 또는 코람코자산운용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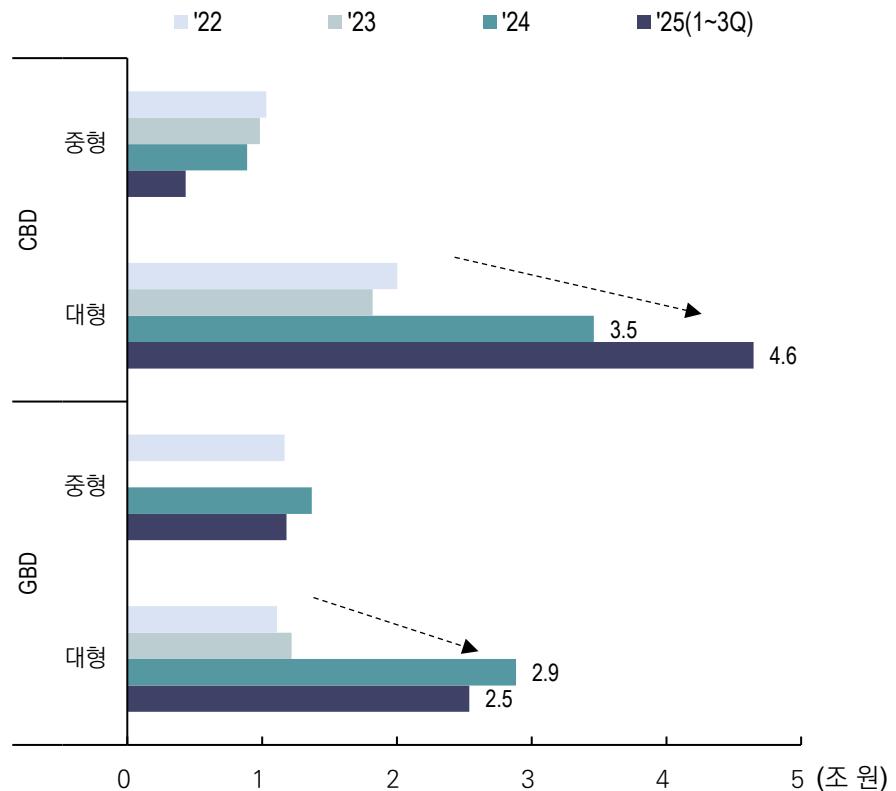
3분기 누적 거래규모 18.9조 원으로 역대 최고 기록 경신, 대형 자산 중심 거래

- 올해 3분기 누적 거래액 전년동기 대비 115% 증가해 사상 최대 규모 달성
- 대형 자산 거래 비중 81%로 최고 수준, 투자시장 내 자산 양극화 심화

권역별 거래규모



등급별¹⁾ 거래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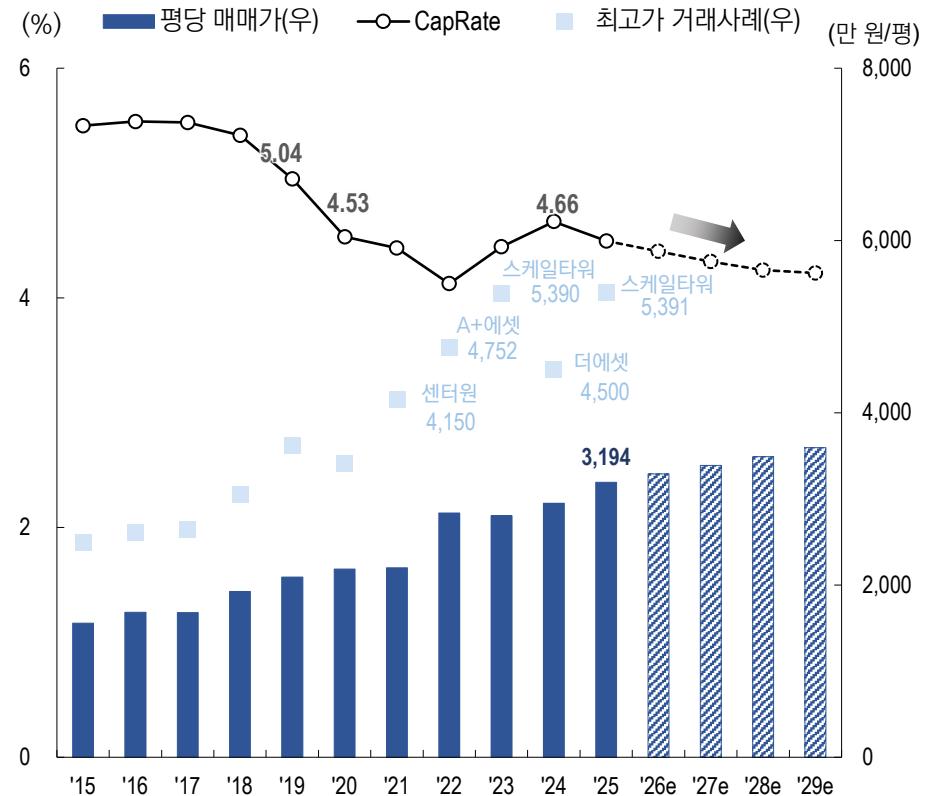
Note: 1) 대형: 1만평 이상, 중형: 5천평 이상~1만평 미만

Source: 알스퀘어, Koramco 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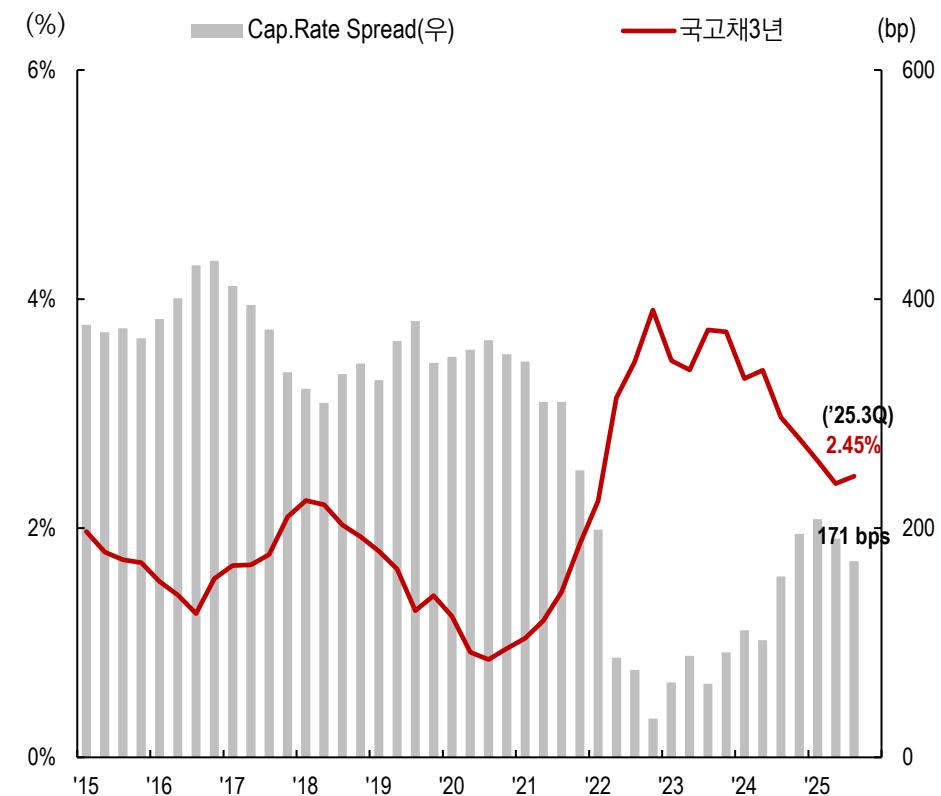
매매가 상승 및 임대료 상승 풍화 영향으로 Cap.rate 하락세 전망

- 3분기 서울 오피스 Cap.rate 4.5%기록, 전 분기 대비 14bp 하락
- 금리 상승 영향 지속으로 Cap.rate spread(국고채 3년물 대비)는 전 분기 대비 20bp 하락

서울 오피스 Cap.rate¹⁾ 및 평당가



서울 오피스 Cap.rate spread



Note: 1) 베이지안 추론모형을 통한 Stabilized 명목 Cap.rate, Cap.rate계산 방식은 「(보증금 × 보증금 운용이율) + 임대료 + (관리비 × 30%) × (1 - 권역평균공실률)) / 거래가격」과 같음
'26년 이후 추정은 머신러닝 모형을 이용해 추정

Source: 알스퀘어, Koramco R&S

세금 절감 효과로 셰어딜 거래 확대, SI 참여 비중 지속 증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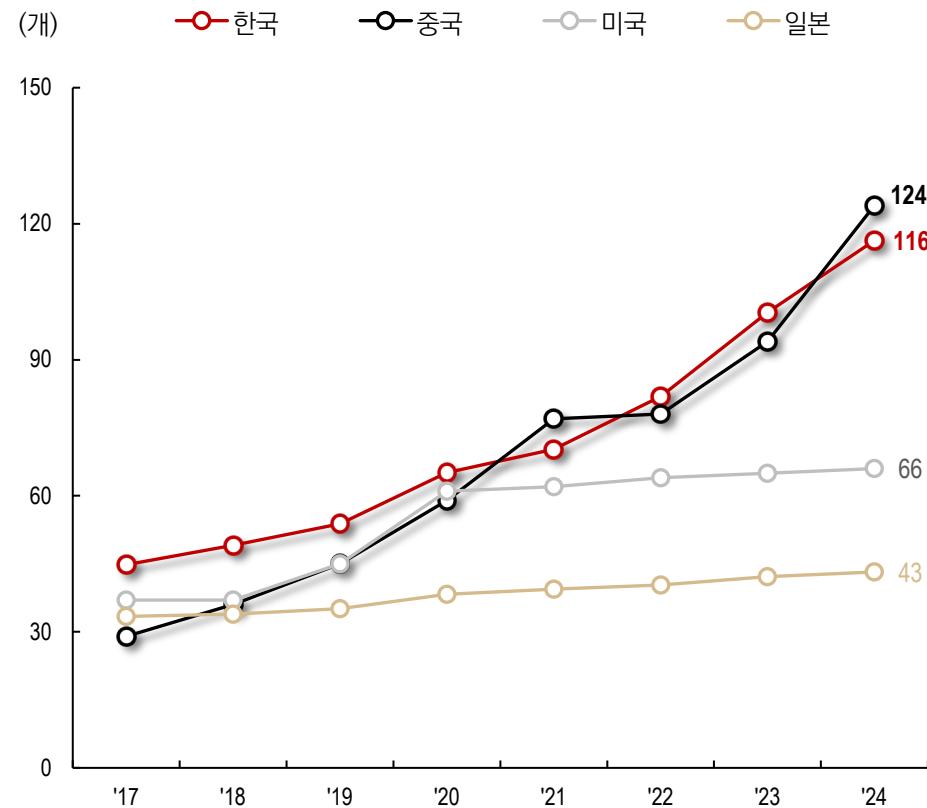
- 운용사의 우량 자산 장기 보유 전략과 함께 맞물려 셰어딜 성장세 지속
- 사옥 확보 목적으로 법인·전략적 투자자(SI) 거래 참여 확대, 당분간 계속될 전망

열람을 원하시면
코람코자산신탁 또는 코람코자산운용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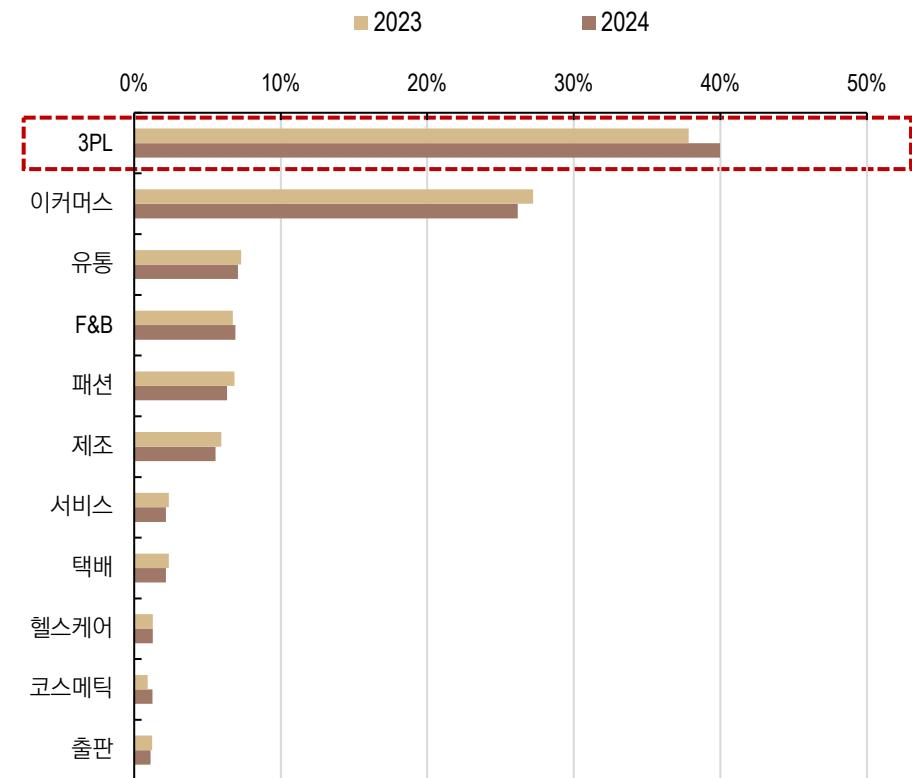
택배 물동량 및 위탁 물류 수요 증가에 따라 물류센터 임차 수요 지속 전망

- 한국 1인당 택배 물동량 역대 최고, 글로벌 최대 규모인 중국과 유사한 수준
- 이커머스 성장으로 '24년 3PL 비중 전년 대비 2%p 증가, 직접 → 위탁 물류 전환 가속화

주요국 연간 1인당 택배 물동량 (중국, 미국, 일본, 한국)



수도권 업종별 주요 임차인 비중 증감¹⁾



2024년까지 이어진 대규모 신규 공급으로 높은 공실률 지속, 초대형 임차 수요는 증가세

- 명목 임대료 상온 3.3만 원, 저온 6.1만 원 수준, 임차인 요구에 따라 렌트프리 유동적
- 3분기 수도권 공실률 상온 16%·저온 40%로 전 분기와 유사, 그러나 초대형 자산에 대한 임차 수요 증가

권역별 평균 임대료 (수도권, 신축 포함)

권역별 공실률 변화 추이 ('24.4Q ~ '25.3Q)

열람을 원하시면
코람코자산신탁 또는 코람코자산운용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공급 급감, 경기도 물류 건축허가 가이드라인 배포로 대형 센터 공급 축소 전망

- '25년 3분기 누적 수도권 신규 공급 25만 평, 전년 동기 대비 72% 감소
- '22년 이후 신규 착공 감소·개발 기간 장기화로 신규 공급 지연, 경기도 내 대형 센터 공급 제한적

권역별 신규 공급 추이 (연면적 2천평 이상, 수도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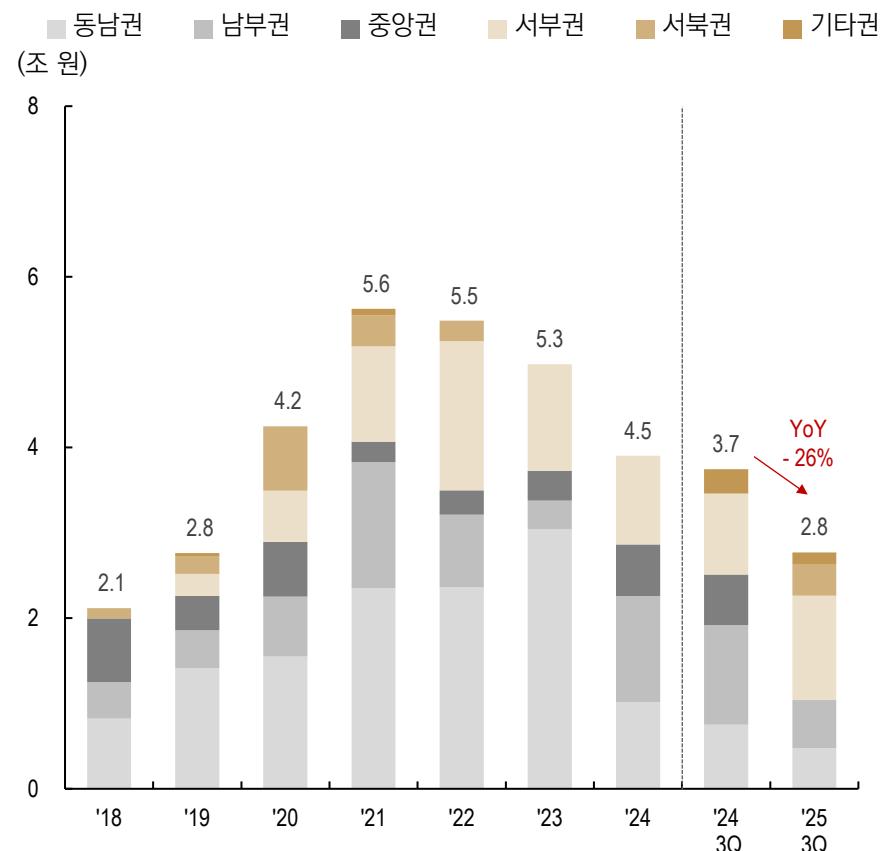
착공 건수 및 인허가 후 착공까지 소요기간 (연면적 2천평 이상, 수도권)

열람을 원하시면
코람코자산신탁 또는 코람코자산운용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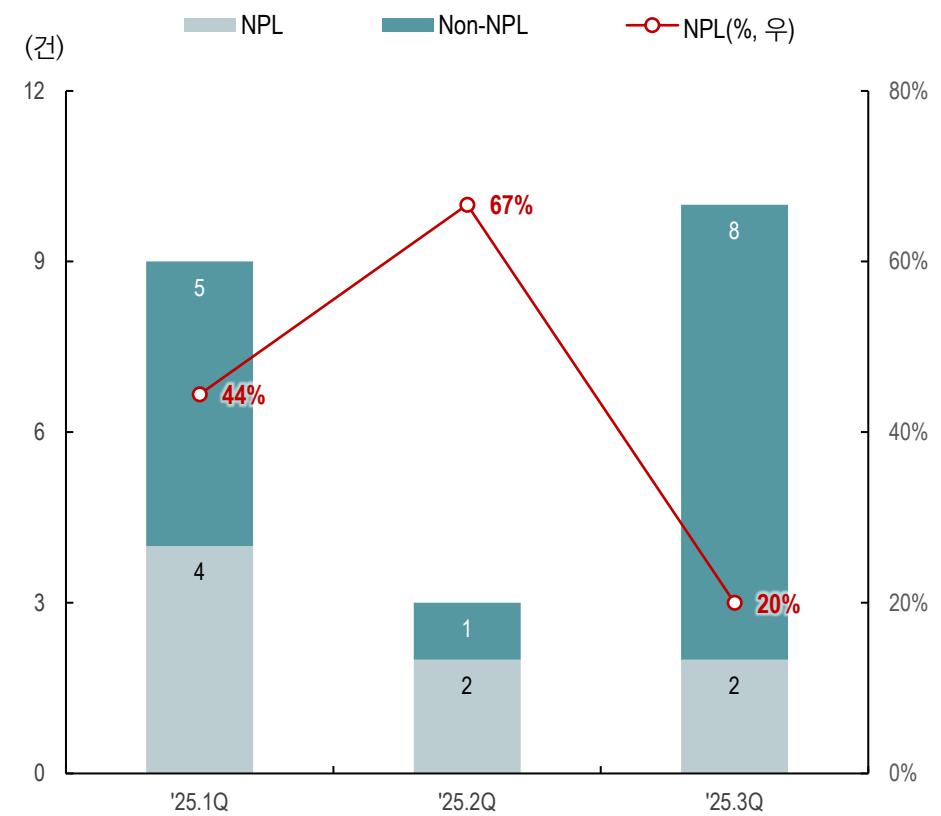
투자시장 NPL성 거래 중심에서 정상 거래로 체질 개선 중

- 3분기 누적 수도권 거래규모 2.8조 원, 전년 동기 대비 26% 감소
- '25년 상반기까지 NPL·건설사 채무인수 중심이었으나, 3분기 NPL성 거래 비중 20%로 축소

권역별 거래규모 (수도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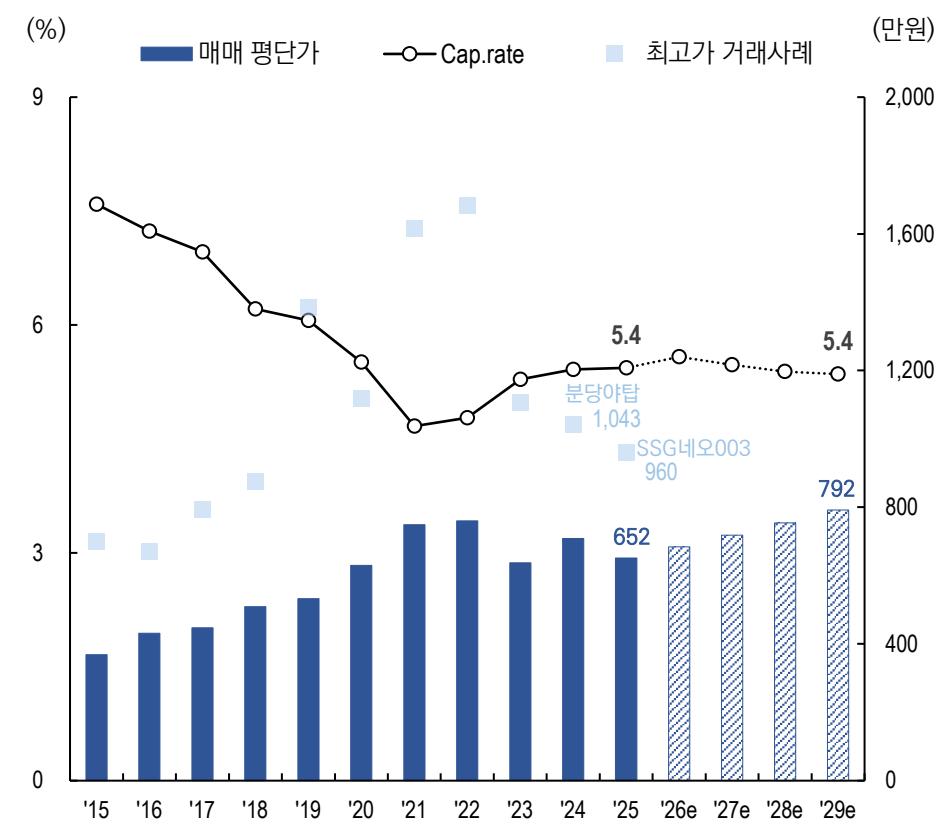
NPL성 거래 빈도 (수도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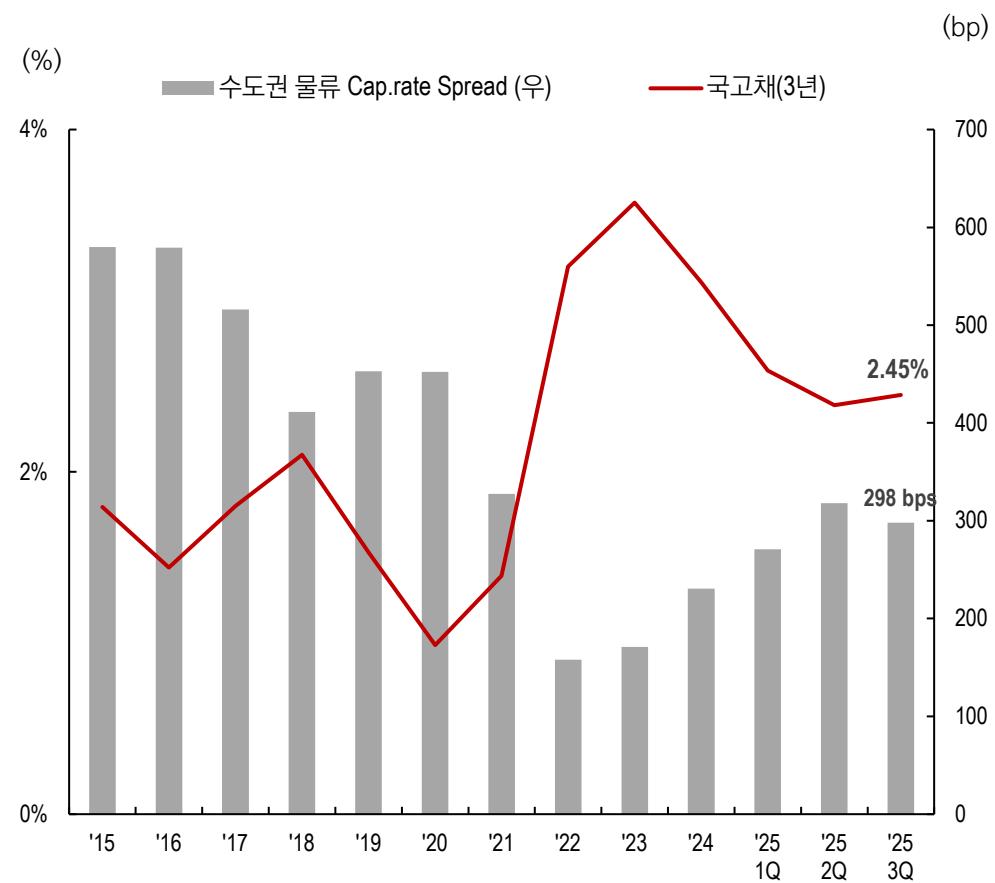
3분기 수도권 물류센터 Cap.rate 5% 중반대 기록

- 3분기 수도권 물류센터 Cap.rate 5.43% 기록, 전 분기 대비 13bp 하락
- Cap.rate spread 298bp 기록, 금리 상승으로 전 분기 대비 20bp 축소

수도권 물류센터 Cap.rate 및 평단가



수도권 물류센터 Cap.rate Spread



호텔시장 ‘운영’ 가치 회복 단계로 진입

- 펜데믹 기간 오피스 컨버전 중심에서 운영 목적 거래로 전환
- 방한 외국인 증가 및 안정적인 호텔 운영 지표 안정화로 해외 투자자 관심 확대

지역별 거래규모 (서울+부산+제주)

'24~'25년 주요 거래사례 (서울+부산+제주, 100억 이상)

 용도 변경 목적

열람을 원하시면
코람코자산신탁 또는 코람코자산운용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리테일 투자시장 침체 장기화 속 ‘용도 변경’ 거래 우세

- 3분기 누적 거래 규모 0.6조 원(총 3건), 전년 동기 대비 39% 감소
- 시니어하우징·임대주택·오피스 등 용도 변경 목적의 거래 중심

지역별 거래규모 (전국)

'24~'25년 주요 거래사례 (전국, 할인점+백화점+대형쇼핑몰)

 용도 변경 목적

열람을 원하시면
코람코자산신탁 또는 코람코자산운용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3. New Econom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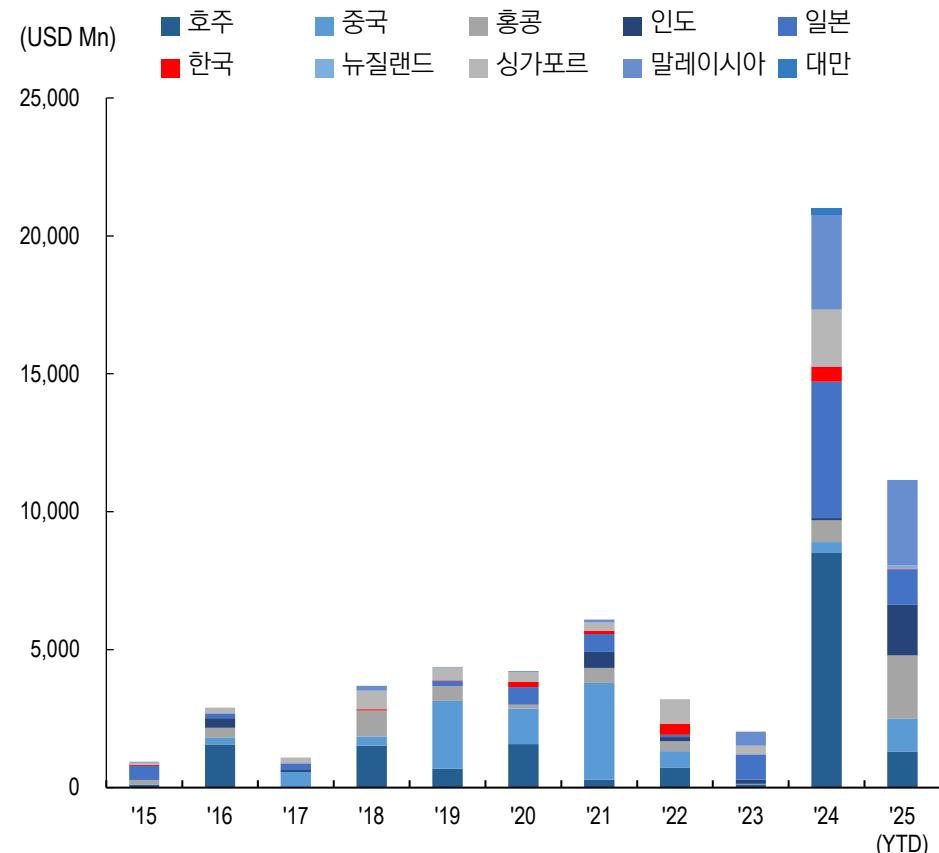
2026 CRE Market Outlook

3. New Economy | 데이터센터 거래 규모

데이터센터, 상업용부동산 신규 섹터로 부상하며 거래 규모 증가 전망

- APAC 데이터센터 거래 규모 3분기 누적 \$115억 기록, 말레이시아·홍콩·호주 중심 거래 형성
- '24년 하남 데이터센터 시작으로 국내 자산운용사 시장 참여 확대, '25년 실물거래 2건 확인

APAC 데이터센터 거래규모 ('15-'25)



국내 데이터센터 주요 거래사례 ('19-'25)

거래 시기	사업명	연면적(평)/ 용량(MW)	거래가 (억원)	매도자	매수자
2019	드림마크원 구로	7,002평/ 10 MW	491	신세계I&C	드림마크원
	삼성SDS 과천IDC	5,491평 n/a	555	삼성SDS	경복
	목동IDC 1센터	27,288평 n/a	3,200	아주케이티엠 사모부동산투자신탁호	미래에셋대우
2020	분당호스트웨이	4,396평/ 12.5 MW	485	JB자산운용	코람코자산운용
2024	하남데이터센터	12,681평/ 40 MW	7,340	이지스자산운용	맥쿼리인프라
2025	세종텔레콤 분당IDC	2,667평/ 6.75 MW	315	하나대체 자산운용	파인앤파트너스 자산운용 (안젤로고든)
	SK AX판교	20,313평/ 30 MW	5,068	SK AX	SK브로드밴드

美 데이터센터, 팬데믹 이후 위험 대비 수익 높은 Core 자산으로 부상

- 팬데믹 이후 금리 변동 속에서 가장 낮은 변동성 기록, Core 자산 투자처로 인식 전환
- 팬데믹 이후 유일하게 위험 대비 수익 안정성 개선한 섹터

미국 부동산 주요 자산별 Cap.rate 추이

섹터별 변동성(Volatility)¹⁾

열람을 원하시면
코람코자산신탁 또는 코람코자산운용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데이터센터 시장 2029년 2.2GW 규모 성장 전망, 엣지 데이터센터 공급 증가 추세

- 클라우드·AI 성장 가속화로 시장 규모 850MW(2025년) → 2.2GW(2029년) 확대 전망
- 수도권 내 수전 확보 어려움으로, 전력계통영향평가 미 대상인 10MW 이하의 엣지 데이터센터에 대한 공급 증가 추세

국내 Colocation 데이터센터 시장 규모 전망 ('15-'29)

개발 중인 엣지 데이터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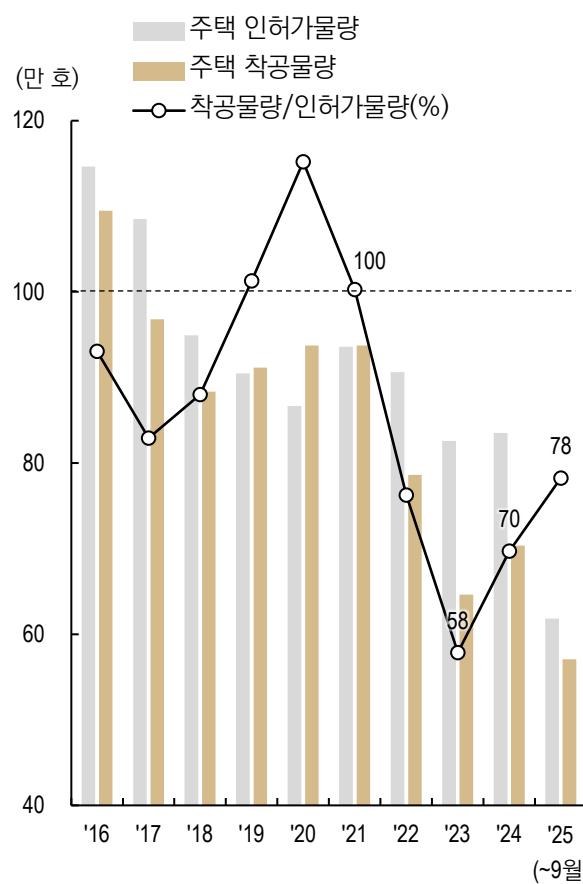
열람을 원하시면
코람코자산신탁 또는 코람코자산운용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 New Economy | 주택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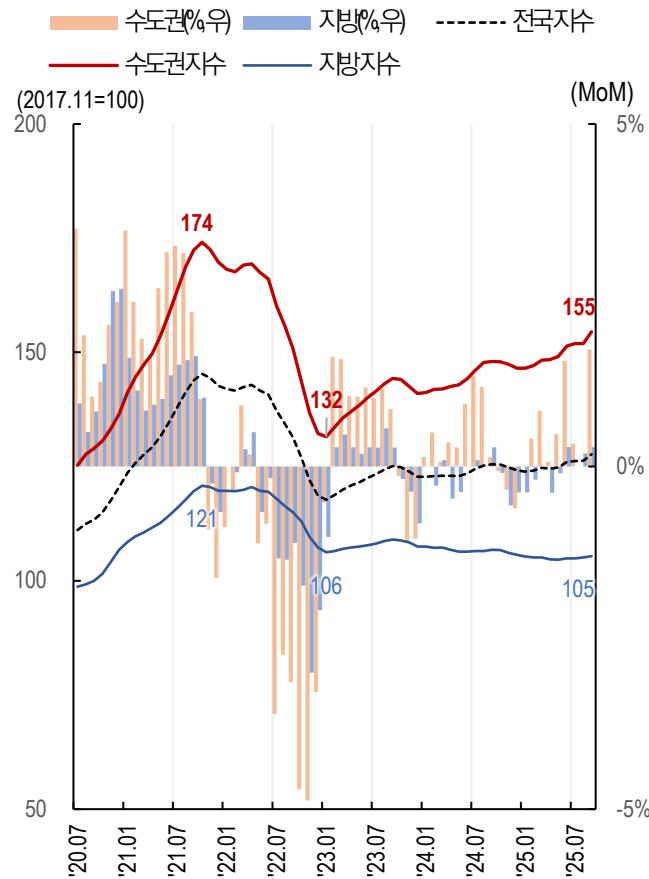
주택 공급 부족 여건 속에서 매매·월세가격 모두 상승

- 인허가 및 착공 물량 반등하며 주택 공급 여건 개선 중이나 과거 대비 주택 공급 낮은 수준
-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 매매가격 상승. 월세가격은 상승폭 둔화됐으나 전년 대비 약 10%로 여전히 높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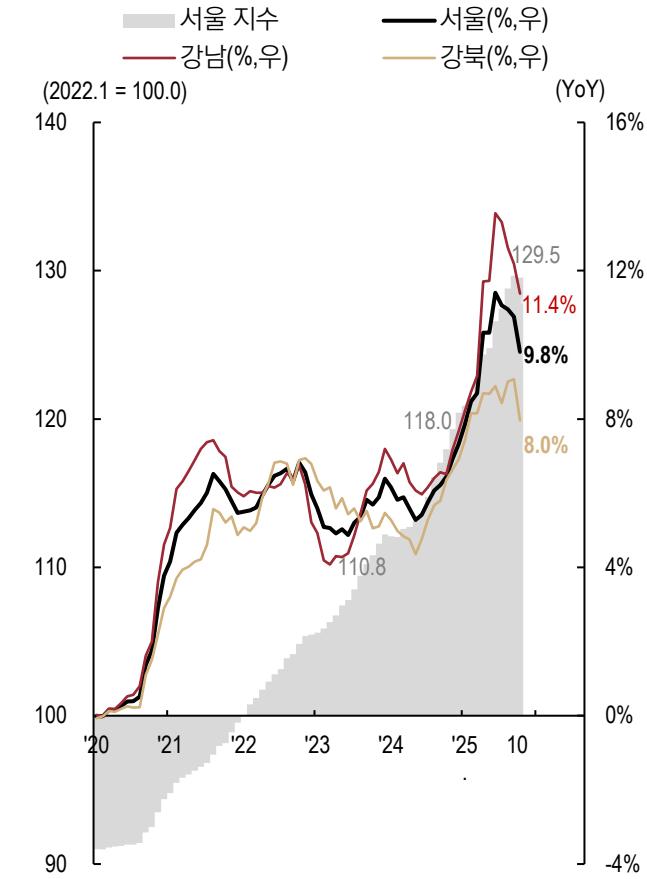
주택 공급 추이



아파트 실거래 매매가격 지수 및 변동률



아파트 월세가격 지수 및 변동률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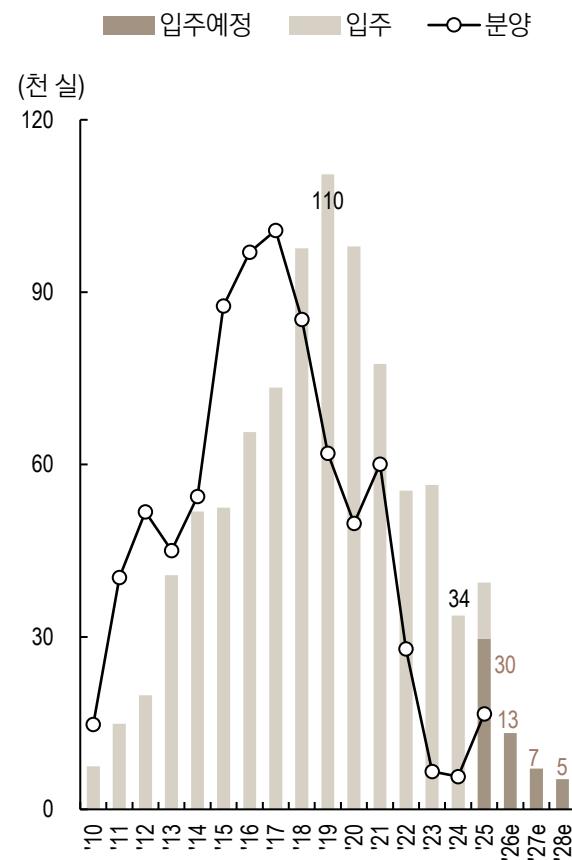


3. New Economy | 오피스텔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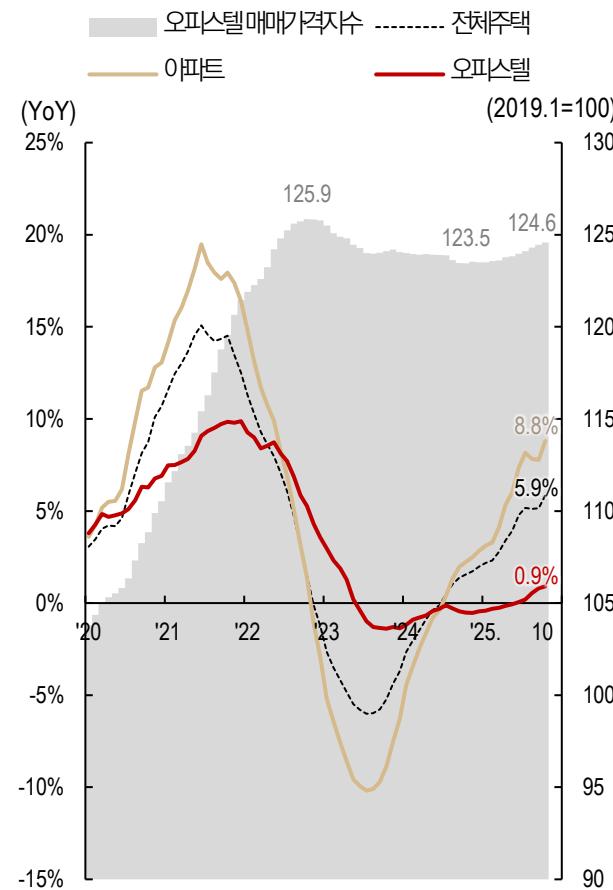
오피스텔 시장 회복 추세지만, 아파트 및 과거 대비 약세

- 아파트 대비 오피스텔의 매매가격 상승폭(0.9% YoY) 낮고 실거래 규모도 과거 대비 절반 수준
- 기공급 물량의 부족 상황에서 아파트 규제 반사이익 더해지며 오피스텔 매매가격 및 거래량 회복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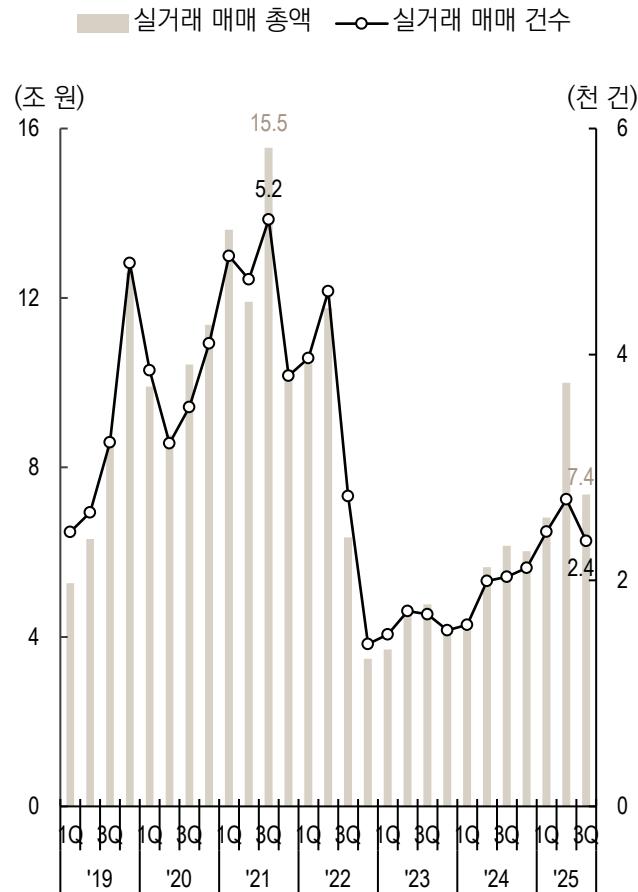
오피스텔 공급 추이



매매가격 변동률 (서울)



오피스텔 실거래 매매 규모 (건수,총액)



임대형 주거 상품에 대한 투자 및 회수 시장 점차 활성화되는 모습

- 오피스텔, 호텔 등 저가매입해 컨버전하는 사례 이어지는 가운데 안정화된 자산의 Exit 사례도 증가 (3건 Exit, 포트폴리오 매각 추진)
- 단, 임대 사업자 대출 제한, 최근 민간매입임대 종부세 합산 배제 등 정책적 불확실성은 제약요소

코리빙 Exit 사례

열람을 원하시면
코람코자산신탁 또는 코람코자산운용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現 정부는 2025년 총 세 번의 부동산 시장 관련 정책을 발표

- 개별 정책의 배경 상이하나 주로 개인 투자 중심의 규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음
- 민간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 배제 제외로 인한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투자시장 위축 우려

최근 부동산 시장 주요 정책

시점	정책명	배경	주요 내용
'25. 6. 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계 대출 빠르게 증가 • 가계 부채 관리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계 대출 한도 설정 (최대 6억원) • 2주택자 대출 규제 (수도권·규제지역¹⁾ LTV 50→0%) • 대출 만기 최대 30년 제한
'25. 9. 7	주택공급 확대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신규공급 부족 예상 • '25년부터 입주물량 감소 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주도(LH)의 공공부문 주택 공급 • 규제지역 LTV 한도 축소 (50→40%) • 전세대출한도 일원화 (2억원) •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 LTV 제한 (30~60% → 0%)
'25. 10. 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가격 빠른 상승세 • 주택 투기수요 차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대상지역²⁾ 및 투기과열지구³⁾ 추가 지정 (서울 전역 및 경기도 12개 지역) • 토지거래 허가구역⁴⁾ 지정 • 민간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 배제 제외

주 1) 규제지역 : 투기·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주택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지역

2) 조정대상지역 :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시장 조정이 필요한 지역, 지정시 대출, 세금, 청약 관련 규제 적용

3)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보다 더 강력한 규제가 적용되는 지역, 청약 및 대출 관련 강한 규제 적용

4) 토지거래허가구역 : 토지 및 주택 거래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사전 허가 필요, 매입 후 2년 이상 실거주 및 자금조달계획서·실거주계획서 등 제출 의무

2024년 말 화성 동탄2 공모 이후 올해에도 시니어하우징 개발 추진 사례 지속

- 공공, 건설사, 금융사, 유통/통신 등 다양한 주체들이 시니어 주거시설 개발 등을 통해 포트폴리오 확장 중
- 대부분의 사업 초기 단계로 실제 공급까지 상당시일 소요 예상. 대부분 주거, 의료, 업무 등과 복합 용도로 개발

시니어하우징 개발 추진 사례

열람을 원하시면
코람코자산신탁 또는 코람코자산운용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착공 더뎌지고 공사 기간 확대되며 건설 기성 및 투자 회복 지연

- 건축 수주 회복에도 불구하고 착공은 감소. 부동산 PF 대출 심사 강화, 지방 부동산 경기 둔화 등으로 수주와 착공 간 괴리 심화
- 건설 기성 2024년 이후 하락세. 최근 안전 규제 강화, 현장 운영리스크 증가 및 비용 부담 확대 등이 부정적 영향

건축수주 및 착공 면적

건설 기성 추이

건설공사비 및 생산자물가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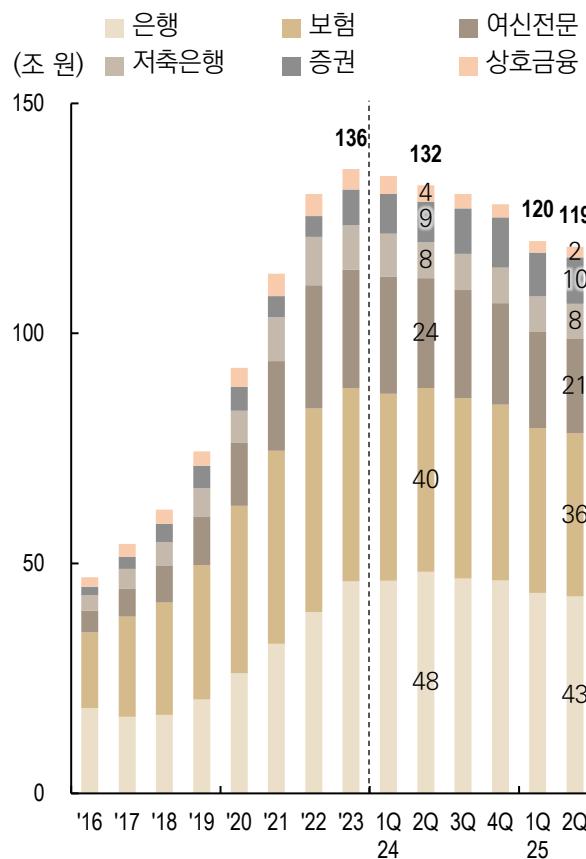
열람을 원하시면
코람코자산신탁 또는 코람코자산운용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 New Economy | 부동산PF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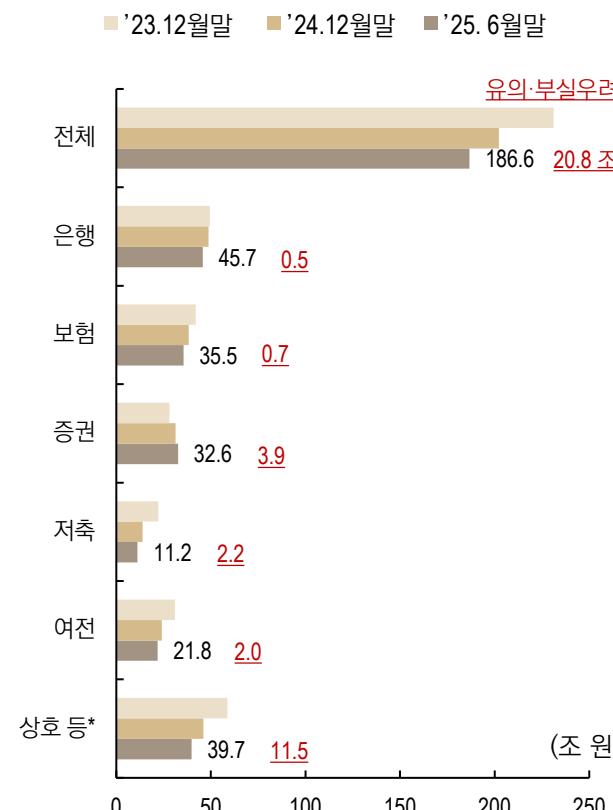
부동산 PF시장 구조조정 진행 중이나 금융 및 지역 리스크 잔존으로 ‘불완전 안정 국면’건산研

- PF 대출잔액 및 익스포져 감소 지속 ('25.6월말 기준 PF대출잔액 119조 원, PF 익스포져 187조 원/ '24년말 대비 -7%)
- 유의 및 부실 우려 사업장 정리·재구조화되며 시장 정상화 진행 중이나 연체율은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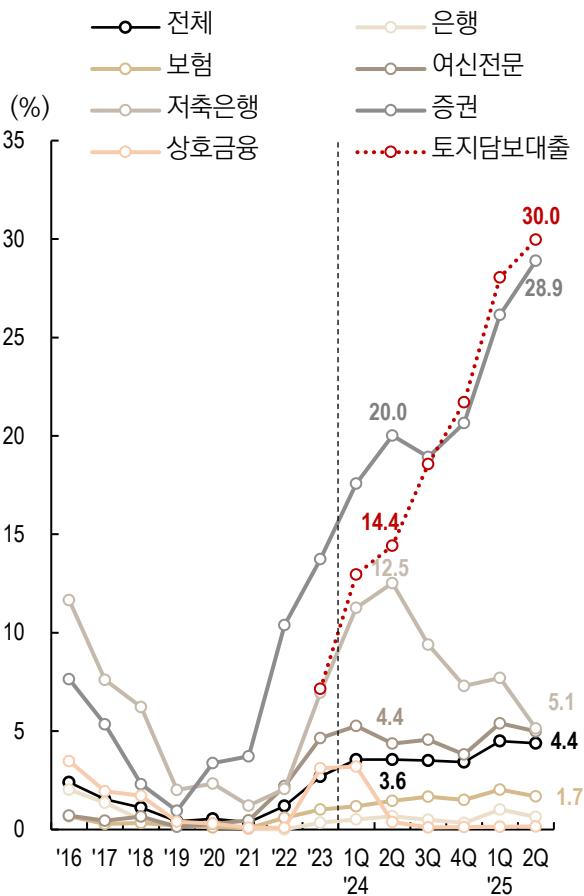
부동산 PF대출잔액



부동산PF 익스포져



부동산 PF대출 연체율



Contact Point

KORAMCO Asset Management | 리서치&전략실

김 열 매 실장/이사
02-787-0023

fruit@koramcofund.co.kr

정 진 우 팀장/부장/경제학박사
02-2251-7338

jinwoo.jung@koramcofund.co.kr

박 은 미 부장
02-787-0291

empark@koramcofund.co.kr